백두산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17호 - 주체91(2002)년 5월 1일 백두산 편집부

한민전대변인, 외교통상부장관 의 망발과 관련해 성명

얼마전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은 미국에 찾아가 현 남북관계가 완화되고 있는 것이 마치도 미국의 강경정책의 결과인 것처럼 부시행정부를 찬양하고 한미공조를 애걸하며 이북을 헐뜯는 망발을 내뱉었다. 나라와 민족도 모르고 통일도 안중에 없는 매국역적의 추악한 넋두리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 민중은 최성홍의 얼빠진 망동에 대해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현당국의 책임있는 해명과 6.15공동선언에 대한 입장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최성홍의 망발을 6.15공동선언과 4.5공동보도문에 따라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거세하는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로 낙인하고 이를 준열히 단죄규탄한다.

자주로 존엄높고 일심단결로 강위력한 이북에는 그 누구의 강경정책이나 압력이 통하지 않는다. 이북은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의 기치 드높이 역사적 숙원인 민족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내외반통일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빚어진 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공동선언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고 지난 4월초 공동보도문을 마련하였으며 그 실천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

오늘 공동보도문에 따르는 남북간의 대화와 접촉이 활발해지고 대결국면에로 치닫던 한반도정세가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북의 성의있는 노력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현당국자들속에서 또다시 튀어나온 이같은 망발은 공동보도문을 의도적으로 뒤집어놓으려는 반민족적 반역행위가 아닐 수 없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그 이행을 위한 전 과정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결,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제침략자들과 그에 추종하는 최성홍과 같은 추악한 매국역적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관계개선의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확증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현당국자들은 이북의 6.15공동선언이행의지와 민족애를 외면하면서 동족공조가 아니라 상전 미국에 빌붙어 공동선언이행을 각방으로 방해하는 망동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책임있는 고위당국자의 이번 망발은 결코 그 어떤 개인적 소신이 아니라 현당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는 엄중한 것이다.

현당국은 이에 대해 구구한 변명으로 발뺌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온 겨레앞에 명백한 대답을 해야하며 애송이처럼 민심도 분간못하는 사대매국노 최성홍을 제명해야 할 것이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다.

현당국자들은 공동선언의 기본정신과 배치되는 사대매국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자 미국과의 공조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동족공조에로 나서야 한다.

우리 민중은 당국자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를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일치단결하여 매국역적, 통일의 걸림돌을 가차없이 매장해버릴 것이다.

우리 한민전은 전국민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높이 치켜들고 미국과 친미사대매국노들의 대북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의 새아침을 앞당겨오고야 말 것이다.

주체91(2002)년 4월 29일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F-15K재가하면 대통령은 역사적 단죄대상 될것

≪공동행동≫, 대통령 재가거부 촉구

30일 오전 12시 서울 옥인동 범혜사 앞에서 F-15K선정에 대한 대통령 재가 거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F-X 사업 외압 의혹 진상 규명과 F-15K 선정 철회 공동행동≫이 주최한 이날 집회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서경원 전 국회의원, 홍근수 자통협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등 30여명이 참석해 보잉사의 F-15K 전투기 도입으로 확정된 F-X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종렬 상임의장은 이날 집회의 개회사를 통해 ≪미국의 무기판매는 만악의 시작≫이며 ≪미국 무기판매의 근절만이 이나라를 살리는 참된 길≫임을 강조했다.

또한 서경원 전 국회의원도 ≪더 좋은 무기를 두고 헌 고물을 사들이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김동신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과 이번 F-X 사업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할것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통령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국방부의 F-15K 선정을 전후하여 세간에 우리 정부와 부시 정권과의 빅딜설이 나돌고 있다≫며 ≪끝내 F-15K 도입을 재가한다면 그 결과는 과거 율곡비리처럼 단순히 외교안보수석이나 국방장관의 사법적 단죄로 끝나지 않고 바로 대통령 자신이 역사적 국민적 단죄의 대상으로 되리라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F-15K 선정에 대한 재가를 거부하고 F-X 사업을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부시 정권의 부당한 압력을 물리치고 짓밟힌 국가 주권과 국민 자존심을 되살리며 국가적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늘 집회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전투경찰들이 난입,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해 짧은 시간 집회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유뉴스 2002/04/30

2 종합
- 5월1일 경기장
- 태양찬가속에 우리는 산다
- 북남 흩어진 가족, 친척들 가족단위 상봉
- 112주년 노동절 맞아 두 노총 총력투쟁
- 일본은 전쟁법조작놀음을 걷어 치워야
- 미국의 오만한 인권간섭책동

4 노작
-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 (2)

6 세기와 더불어
- 7장 3절 소비에트냐, 인민혁명정부냐? (3)

8 칭송
- 남북연석회의에 바치신 노고
- 어머님의 뜻
- 최대의 염원 (1)

9 노동신문 사설
-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의지로 살며 투쟁하는 신념의 강자가 되자
- 동지애의 천만리(1)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이회창은 민족의 역적 반통일분자
- 부시의 졸개 이회창의 목을 따자
- 이회창은 부시의 핵전쟁 머슴꾼

13 투쟁보도
- F-15K 대통령 재가 거부 촉구
- FX사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국회에서 전동록씨 사진전
- 올 사회운동 핵심 이슈
- 빗속 철거민 시위

15 운동강좌
- 부시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 (2)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

4월말부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게 된다. 이 경기장은 수도의 이름난 유원지인 대동강의 릉라도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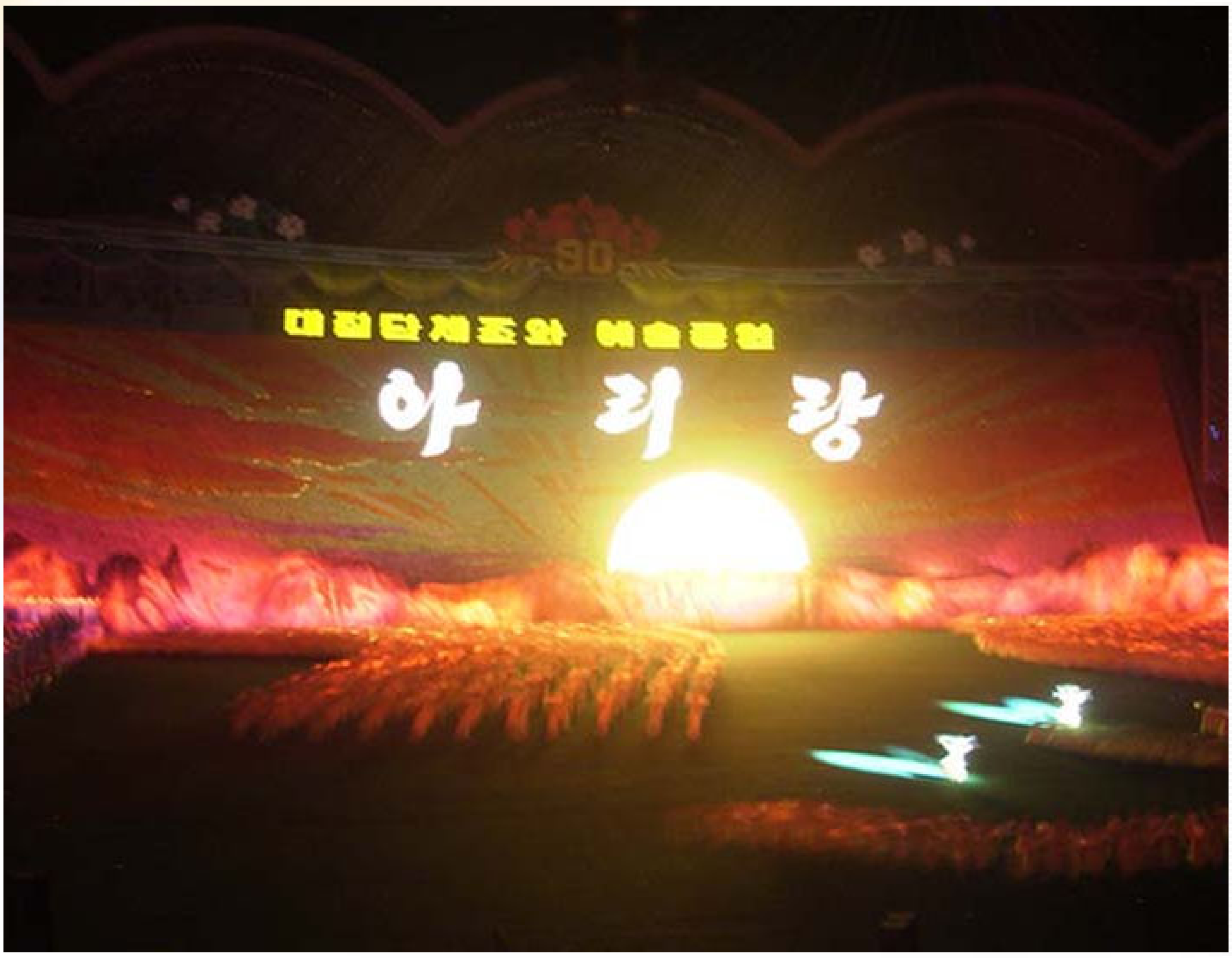
락하산 모양으로 건설된 경기장은 주체78(1989)년 5월 1일에 준공되였다.

15만석의 관람석을 가진 경기장의 부지면적은 40여만평방메터이다. 채양길이가 60메터인 지붕은 관람석을 전부 덮고 있다. 경기장건물은 8층으로 되였다.

1층에는 선수들을 위한 10여개의 각종 훈련장, 휴계실, 수영장 등이 있고 2-5층에는 관람자들을 위한 휴계실, 청량음료점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이 있다. 6층에는 80여개의 선수 침실과 870메터의 륙상주로, 국제전화실, 텔렉스실, 기자실, 면담실 등이 있다. 7, 8층에는 경기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다. 경기장에는 관람자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전광텔레비죤(20메터×10메터)이 설치되여 있다. 또한 이곳에는 300여대의 자동차를 세울수 있는 실내주차장이 있다.

이 경기장에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폐막행사(1989.7)와 북남통일축구경기(1990.10),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체육 및 문화축전(1995.4)등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로동당창건 55돐(2000.10.10)을 기념하여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29일



태양찬가속에 우리는 산다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문화예술분과 위원장의 글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문화예술분과 위원장이며 ≪우륵교향악단≫ 단장인 리준무는 ≪태양찬가속에 우리는 산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력사에 송가를 받은 위인들을 보면 전 생애에 한편, 많아서 며편 있을뿐이지만 **김일성**주석님처럼 당대에 그렇게도 많은 송가를 받으신 위인은 력사에 없었다고 썼다.

그는 주석님은 10대에 벌써 태양찬가인 송가 ≪조선의 별≫을 받으시였고 30대에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받으시였다고 썼다.

그는 세계의 이름 있는 국가지도자들이 많이 참가한 1965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반둥회의 10돐경축연회에서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자 수카르노대통령이 일어 나 좌중을 향해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김일성**각하에 대한 노래가 연주되고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손을 흔들며 노래주악을 지휘한 사실을 일화로 썼다.

그는 주석님송가의 세계는 헤치면 헤칠수록 끝이 없는 위대성의 보물고였다고 썼다.

그는 일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 있다면 그 첫번째는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송가를 접한것이였고 두번째 큰 행운은 새 세기의 태양찬가를 또다시 받아 안은것이였다고 하면서 ≪**김정일**장군의 노래≫에는 자주로 나아가는 세계를 이끄시는 21세기의 태양의 거룩한 모습이 숭엄하게 안겨 왔다고 썼다.

장군님은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주석님 그대로이신 새 시대의 태양이시라고 하면서 그는 장군님 계시여 주석님은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신다고 썼다.

그는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된것은 공화국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던 1990년대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제노라 하는 미국을 통쾌하게 제압하고 그 모진 역경속에서도 기적같이 일떠선 성공의 비결, 나는 그것을 **김정일**장군의 음악정치의 힘이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유년시절에 받아 안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처음으로 맞이한 태양의 노래였다면 인생의 50대에 받아 안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태양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갈 21세기 태양의 노래, 오늘의 ≪**김일성**장군의 노래≫였다.

그는 1998년 미국땅에서 처음으로 ≪**김정일**장군의 노래≫송가 음악회가 열려 큰 파문을 일으킨 사실에 언급하고 위대한 태양을 모셔 태양찬가의 조국을 가진 조선민족은 참으로 복 받은 민족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29일

북남 흩어 진 가족, 친척들 가족단위로 상봉

우리측 흩어 진 가족, 친척들이 29일 금강산려관에서 남에서 들어 온 혈육들과 가족단위로 상봉하였다. 28일의 집체상봉에 이어 진행된 오늘의 가족상봉에서 북과 남의 가족, 친척들은 가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상봉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혈육의 정을 두터이 하고 통일애국의 마음을 굳히였다. 북의 가족, 친척들은 남의 상봉자들에게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여 주고 편지도 전하면서 단란한 분위기를 돋구었다.

평양시 강동군에서 살고있는 리신호는 남에서 온 동생에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남에 있는 어머니에게 사랑의 아흔돐상을 보내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원산시의 김봉연은 형을 만난 자리에서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품이 있어 형제들과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들의 희망에 따라 여러 기관들에서 일하면서 보람찬 삶을 누리고 있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북의 혈육들은 민요와 통일노래들을 부르면서 조국통일위업수행에 한몸 바쳐 갈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북의 혈육들은 북과 남의 동포들이 서로 힘을 합쳐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해 나감으로써 통일조국의 새 아침을 하루빨리 앞당길것을 절절히 호소하였다. 남의 혈육들도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북의 가족, 친척들과 함께 모여 살 그날을 위해 힘자라는껏 노력할 결의를 가다듬었다. 북과 남의 혈육들은 서로 기념품을 교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29일

112주년 노동절 맞아 두 노총 총력투쟁 선언

≪노동자 정치세력화 나선다≫

민주노총 여의도 한국노총 종묘서 집회, 지방선거 · 대선 등 정치 참여 본격화

112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두 노총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임금 · 단체협약 갱신협상을 목표로 한 본격적인 투쟁을 선언한다.

두 노총은 임단협과 연계한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내걸고 5월 중순부터 말까지 집중적인 쟁의조정 신청과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월드컵을 앞두고 올해 노사관계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두 노총은 또 오는 6월 지자체 선거에 대거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하는 등 정치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서울 안암동 고려대에서 노동절 전야제를 가진 뒤 5월1일 서울 여의도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조합원 등 5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 5일 근무 쟁취,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및 노동탄압 중단,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등을 촉구하는 ≪세계 노동절 112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또 지난 29일 중앙위원회에서 노사정위가 현재 논의대로 주 5일제 합의를 강행하면 즉각 전국적인 규탄대회를 열고,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파업 등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5월 한달간 1단계(8~11일), 2단계(15~18일)로 나눠 발전 등 기간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영화 저지 투쟁에 집중하고 오는 21~25일에 3단계로 각 사업장의 임단협 시기를 맞춰 연대파업을 전개하고 26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조합원 상경 투쟁을 벌이는 등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투쟁 일정도 확정했다.

이와 함께 100여명의 ≪노동자 후보≫를 민주노동당 공천 등의 형식으로 출마시키며, 운동원을 파견하고 가족들을 투표에 참여시키는 등 오는 6월 지자체 선거 방침도 최종 결정했다.

한국노총도 1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 5일 근무제 쟁취 등을 내걸고 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은 주 5일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곧바로 투쟁기조로 전환키로 하고 월드컵 기간과 무관하게 5월 중순이후 무더기로 쟁의조정 신청을 내는 등 각 사업장별 임단협 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치활동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주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80여명의 지자체 후보를 출마시킬 예정이며, 이들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은 물론 ≪반노동자≫ 후보를 선정해 낙선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김봉수기자
노동일보 2002/04/30

일본은 전쟁법조작놀음을 걷어 치워야 한다

29일부 ≪로동신문≫은 일본반동들이 지금 일본국회에서 해외침략을 위한 전쟁법인 ≪유사시관련법안≫을 채택함으로써 재침전쟁을 위한 법체제를 완비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번에 국회심의에 제출된 ≪무력공격사태≫에 대처하는 법안에는 ≪무력공격사태≫란 일본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뿐아니라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을 경우와 그리고 ≪사태가 긴박하여 무력공격이 예측되는 사태≫를 말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멋대로 구실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선제공격을 가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일본반동들이 ≪유사시관련법≫을 제정할 구실로서 우리 공화국의 ≪위협≫을 내들고 있는것이다.

과거의 침략범죄에 대한 사죄, 보상이 급선무로 나서고 있는 오늘 일본반동들이 이를 외면하고 우리 공화국에 무력공격을 가하려 하는것은 조선인민에게 새로운 죄를 덧쌓는것으로 된다.

일본이 과거청산을 회피하고 재침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도 부득불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다. 일본반동들이 입에 칼을 물고 신성한 우리 공화국을 건드린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천백배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으로 백년숙적인 일본침략자들을 모조리 쓸어 버리고 뼈에 사무친 민족적원한을 풀고야 말것이다.

일본은 전쟁으로 망한 력사의 교훈과 변천된 오늘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전쟁법조작놀음을 그만 두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4월 29일

미국의 오만한 인권간섭책동

지난 17일 미국회하원 인권위원회는 우리 나라의 인권상황에 관한 ≪청문회≫라는것을 벌리였다.

여기에 ≪증인≫으로 나타난 미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인물은 우리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진실을 외곡하는 허위적인 ≪증언≫을 늘어 놓았다.

이에 앞서 4월 8일 미국은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이라크, 꾸바 등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걸고 들면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인권상황이 심각한 나라≫라느니 뭐니 하며 비방중상한바 있다.

미국이 벌리고 있는 이러한 인권소동은 인권유린의 ≪왕초≫로서의 자기 처지도 모르고 분수없이 놀아 대는 미국식정치광대극의 고리타분한 련속편으로서 국제적인 인권문제해결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인권문제≫를 구실로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적요충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지역문제, 분쟁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저지른 미국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더욱 불러 일으킬뿐이다.

우리가 이미 여러번 천명한바와 같이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 나라에는 미국의 일부 불순세력들이 떠들어대는것과 같은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 존재할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 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계속 걸고 드는 목적은 그들이 결코 다른 나라의 인권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어서도 아니며 국제적인권문제를 해결할 자격이 있어서 그러는것은 더욱 아니다.

미국의 오만한 인권간섭책동의 반동적본질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기 나라의 한심한 인권실태를 가리우고 ≪힘≫에 기초한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에 방해가 되는 자주적이며 반미적인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며 나아가서 군사적간섭과 침략의 구실을 만들어 내자는데 있다.

미국은 이처럼 인권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도전하는 반인륜적인 침략적목적수행의 정치적도구로 삼고 있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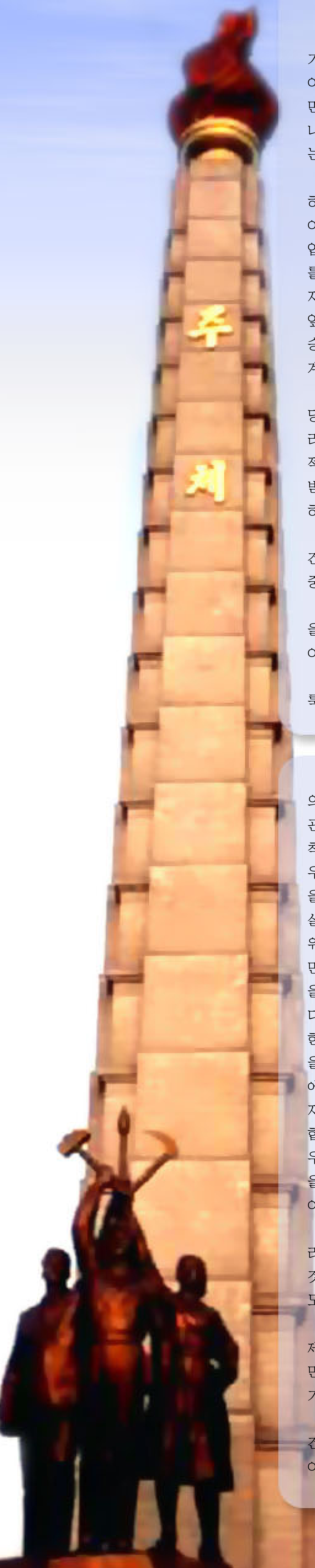
미국이 꾸바, 이라크, 리비아, 유고슬라비아 등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하여 ≪인권≫을 구실로 정치경제적압력과 제재, 무력간섭과 전쟁을 강요하여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하고 무고한 인민들의 생명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준 력사적사실과 오늘 아프가니스탄과 팔레스티나에서 벌어 지고 있는 참혹한 인권상황은 바로 ≪인권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범죄적역할을 립증하고 있다.

모든 사실은 미국이 그 누구도 부여하지 않은 국제사회의 ≪인권재판관≫ 노릇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독선적인 인권정책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들의 진정한 인권인 자주권을 존중하고 범죄와 타락으로 얼룩진 자기 나라의 인권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4월 29일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2)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노작 - 주체84(1995)년 10월 2일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옳게 계승해 나가자면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혁명의 대가 끊어 지고 혁명의 배신자들이 나타나 수령의 위업, 당의 위업을 망쳐 먹는다는것은 력사가 보여 준 심각한 교훈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을뿐아니라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일찍부터 당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닦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며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를 튼튼히 마련하여 놓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는 우리 당에 의하여 드팀 없이 계승되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확신성 있게 령도하여 나가고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무기이며 당을 창건하고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우리 당은 창건후 지난 50년동안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귀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항일혁명의 피어린 투쟁으로 조국광복을 이룩한 후에도 우리 혁명은 류례 없이 복잡한 정세와 간고한 투쟁속에서 전진하여 왔다. 외세에 의한 국토의 량단,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 제국주의의 끊임 없는 침략과 파괴암해책동,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여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 그에 따르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의 격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두차례의 복구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견결히 수호하면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빛내여 왔다.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이 힘 있게 추진되여 나라와 인민의 모든 생활에서 위대한 변혁이 이룩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보장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훌륭히 실현하고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동등한 자주적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온갖 사회적불안과 생활에 대한 근심걱정에서 벗어 나 값 높고 보람 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고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 안정되고 공고한 사회이며 온 사회에 건전하고 생기발랄한 정서와 혁명적기상이 넘치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며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끌어 주는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고 있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과시하는것이며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를 뚜렷이 보여 주는것이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부닥치는 난관과 장애를 용감히 이겨 내고 승리의 한길을 걸어 왔으며 앞날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오늘의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떡 없이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그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전진운동을 가로 막으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지만 그 모든것이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 자기의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은 필승불패이며 현 시대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력사의 새 시대, 자주성의 시대라는것을 가장 힘 있게 증시하였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길, 참다운 사회주의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공고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를 헐뜯는 온갖 반동선전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그 우월성과 불패성을 실천으로 뚜렷이 확증하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창건 첫날부터 조국통일은 지상의 민족적과업으로 나섰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하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한 조국통일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우리 당은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의 통일념원을 반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련방제통일방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당의 조국통일정책은 참다운 애국애족의 정책이며 그것은 온 민족의 한결 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민족의 통일지향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의 민족적단합이 강화되고 있다. 날로 더욱 장성강화되는 우리 민족의 통일력량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을 타승하고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할것이다.

우리 당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 위대한 업적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의 령도원칙과 령도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였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언제나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였으며 인민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투쟁하였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이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의 근본원리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정책이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이며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키는 것이 혁명적 령도의 근본요구이다. 인민을 믿고 그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멀리하고 그의 버림을 받으면 백번 패한다는 것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좌우명으로 삼으신 이민위천의 사상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 당의 모든 활동에서 기본출발점으로, 최고의 원칙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였으며 인민의 어버이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와 풍모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그것으로 일관되여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고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 하시였으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힘과 지혜, 우리 인민의 훌륭한 기질을 굳게 믿으시였으며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힘을 불러 일으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사상과 혁명적인 령도방법을 자기의 모든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집대성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웠으며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그것을 관철하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웠으며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일상적으로 인민들속에 들어 가 인민들과 같이 숨쉬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며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해 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활동과 우리 일군들의 사업에서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 주는 어머니당이며 우리 당의 정치는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정치, 인덕정치이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충성으로 받드는 이 진정한 동지적관계, 끊을수 없는 혈연적관계에 기초하여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공고발전되였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위력이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되였다.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인민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투쟁한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그처럼 복잡한 환경과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힘 있게 추진시키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면서 끊임 없는 승리를 이룩하여온 비결이 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을뿐아니라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일찍부터 당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닦으시였다.

자주성은 사람의 본성적요구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혁명과 건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수행되며 그자체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자주적발전을 보장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가 처한 환경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특성으로 하여 우리 당에 있어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는 더욱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부터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고 자주성을 견지할데 대한 문제를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은 주체의 원칙, 자주성의 정신으로 일관된 혁명적인 자주로선이며 우리 당은 이 로선을 견결히 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기의 사상과 신념에 따라 자신이 책임지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 나갔다. 우리 당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온갖 외세의존사상을 철저히 반대하고 그 어떤 외부의 압력과 간섭도 단호히 배격하였으며 기성리론과 기존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모든것을 분석판단하고 자기의 신념과 결심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복잡하고 간고한 조선혁명의 앞길을 헤쳐 나갔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힘 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당의 혁명사상,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그들속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우리 식대로 살아 나가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게 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적립장과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현대수정주의를 비롯한 기회주의의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 올수 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관철하여 반석같이 다져 놓은 우리의 정치사상적힘과 위력한 사회주의자립경제와 불패의 자위적군사력은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제국주의와 지배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 있다. 제국주의의 정치외교적압력과 사상문화적와해책동도 경제적봉쇄와 군사적위협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할수 없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허물수도 압살할수도 없다는것을 현실은 보여 주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공정한 국제관계의 기초이며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가장 정당하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이다.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발전된 민족이나 덜 발전된 민족이나 할것없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국제사회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자주적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자주성을 지키고 자주성을 서로 존중할 때 공정한 국제관계를 발전시킬수 있으며 진실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고 친선적인 새 세계를 건설할수 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국제적지위를 공고히 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적극 기여하였다.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시종일관 견지하여 온 주체적립장과 자주로선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하였으며 혁명적로선과 정책을 일관성 있게 관철하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혁명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는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적원칙을 지키는것은 혁명의 근본리익을 지키고 혁명을 편향 없이 승리에로 이끄는 길이며 혁명적원칙에서 물러서는것은 혁명의 근본리익을 저버리고 혁명을 패배에로 이끌어 가는 길이다. 혁명운동의 력사는 혁명적원칙에서 한걸음 물러서면 두걸음 물러서게 되고 두걸음 물러서면 열걸음 물러서게 되며 결국은 혁명을 망치게 된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혁명적원칙성이 없고 로선과 정책에서 일관성이 없는것이 온갖 기회주의의 특징이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혁명적원칙성은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충실성과 신념,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당의 의지에 의하여 담보된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드놀지 않는 혁명적신념과 강철의 혁명적의지를 지니시고 난관과 시련에 찬 우리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령도하여 오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가이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원칙성과 령활성을 가장 능숙하게 결합시키는 령도예술의 빛나는 모범으로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끌어 주시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원칙, 로동계급적원칙, 사회주의적원칙을 견지하였으며 혁명적인 로선을 일관하게 철저히 관철하였다. 우리 당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으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고 급변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령활하게 대처해 나가면서도 혁명의 근본리익과 근본원칙에서는 한걸음도 물러 서지 않았으며 혁명적원칙과 혁명적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혁명적원칙성에 기초한 높은 창조성과 령활성, 로선과 정책에서의 일관성, 이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여 온 중요한 령도원칙이고 령도예술이며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과 정책의 특징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 기간 혁명적원칙에서 탈선한 일이 없고 원칙이 없이 우왕좌왕한 일이 없으며 로선상 과오를 범한 일이 없다. 우리 당의 혁명적원칙성, 로선과 정책의 일관성으로 하여 우리 혁명이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곡절과 편향이 없이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었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우리 인민의 확고한 신념으로 되고 인민들의 생활에 깊이 뿌리 내릴수 있은것이다.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확신성 있게 령도하여 온 우리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운명을 당에 전적으로 맡기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 나가고 있다.

당건설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과 귀중한 경험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혁명적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다.

우리 혁명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승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당의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빛나게 계승완성될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먼 길을 가야하며 우리 혁명의 앞 길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우리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 해도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지켜 이 길로만 꿋꿋이 걸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 당의 움직일수 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 나가야 하며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사활적요구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내일 계속)

3. 소비에트냐, 인민혁명정부냐?(3)

3권 제7장

인민의 세상

1. 보금자리
2.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3. 소비에트냐, 인민혁명정부냐?
4. 국제당파견원
5. 백마에 대한 추억

그 후 나는 다시 동장영과 함께 정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날의 논쟁에서 중점적으로 토의된 것은 소비에트를 유지하는가 포기하는가, 포기한다면 새로운 정권형태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였다.

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해야 할 동만지방의 유격구들에서 소비에트가 실정에 맞지 않는 정권형태라는 것이 생활적으로 증시된 조건에서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결단을 내려 정권형태를 바꾸고 인민이 구미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 혼란상태에 빠진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고 동장영을 설복하였다.

≪소비에트가 동만의 실정에 맞지 않고 또 소비에트의 일부시책이 혁명에 손실을 주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전번에 **김일성**동지는 소비에트노선 때문에 통일전선노선이 침해를 당한다고 걱정하였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였는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최근 몇 달동안 동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태는 나로 하여금 **김일성**동지의 그 경고를 심사숙소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소비에트를 대신할 만한 정권형태를 확정짓지 못하였습니다.≫

특위서기의 견해에서 생긴 변화는 나를 기쁘게 해주었다. 그날의 동장영은 군중의 기세가 높은 혁명의 고조기에는 소비에트만이 공산주의자들의 유일한 정권형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던 왕년의 그 고집스런 특위서기가 아니였다.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노동계급의 정권형태는 코뮌과 소비에트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장영은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 눈길은 마치 당신이 나를 납득시킬 만한 형태를 찾아낸다면 나도 구태여 반대하지 않겠다는 암시가 담겨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실정에 맞는 형태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봅시다.≫

≪우리가 만든다구요? 슬프게도 나는 그럴만한 천재가 못됩니다. 맑스주의고전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를 고정불변의 것으로 절대화하고 거기에 자기를 얽매려는 그런 부류의 견해와 입장에 나는 동감을 표시할 수 없었다.

≪동장영동지, 프랑스노동계급이 코뮌을 내올 때 그 무슨 고전을 참고했던가요? 러시아의 소비에트가 맑스주의창시자들의 고전에서 명시된 정권형태였던가요? 소비에트를 어찌 한 천재의 두뇌가 낳은 산물이라고만 하겠습니까? 인민이 요구하지 않고 러시아의 현실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소비에트는 역사무대에 등장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동장영은 아무 응대도 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큼직한 담배 쌈지를 꺼내 골통대에 담배를 담아 물고 나에게도 권하였다. 그는 유격구를 돌아다닐 때에도 노상 손에 담배쌈지와 골통대를 들고 다녔는데 노상에서 농민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 골통대에 담배를 담아 피우라고 권하는 특이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소박한 성품 때문에 유격구인민들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였다. 그는 겨울이면 농민들이 쓰고 다니는 개털모자를 쓰고 다녔다.

나는 동장영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답답한 일이지만 그가 내 말을 반박하지 않는 것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였다.

동장영을 만난 후 나는 이용국, 김명균, 조창덕을 비롯한 몇몇 군정간부들과 함께 소비에트를 대신하는 혁명정권을 세울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며칠 동안 심각한 토의를 하였다.

토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정권형태의 규정에서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나는 그때 그 기준이라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 모두가 인민을 위한 투사들이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충복들인 것만큼 우리가 수립하게 될 정권이 각계각층 인민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으며 인민의 지지환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데 기본을 두고 현 단계에서 우리 혁명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동무들은 모든 것이 명백해진다. 각계각층 인민이라는 범주속에는 노동자와 빈고농만이 아닌 광범한 근로대중이 포괄되겠는데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부는 통일전선적 정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통일전선적 정권이야말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성격에 부합되는 정권으로 될 것이다. 그런 정권이라면 쌍수를 들어 찬성한다고 하면서 환성을 울렸다.

나는 통일전선적 정부를 세우되 노농동맹에 기초한 통일전선적 인민혁명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다시금 역점을 찍어 말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역사책들에서 인민혁명정부노선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정권건설노선이다. 가결결과는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우리가 조선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만지방에 적합한 정권형태로 인민혁명정부를 선택한 것은 그것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조선혁명의 성격에도 알맞고 인민의 요구에도 부합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였다. 우리는 정권형태의 기준을 인민의 요구에서 찾고 인민의 이익을 얼마나 옹호고수하며 철저히 대변하는가 하는데서 찾았다.

이처럼 정권형태를 인민혁명정부로 결정한 다음 우리는 어느 한 단위에서 먼저 시범을 창조해보고 그것이 좋다고 인정되면 다른 혁명조직들에도 일반화하자는데 합의를 보았다. 시범 단위로는 5구가 결정되었다.

나는 왕청 5구에 내려가서 이용국, 김명균 등과 함께 인민혁명정부 제5구위원회 대표를 선출하는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은 사수평으로부터 10리쯤 떨어진 하모다니촌에서 진행되었다. 그날은 모쁘르기념일이였다. 모쁘르란 국제혁명투사후원회의 약칭이다. 1923년에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서는 희생된 혁명투사 유가족들의 후원을 목적으로 이 조직을 내오기로 하였고 3월 18일을 국제적인 모쁘르기념의 날로 정하였다. 5구소비에트정부 회장인 조창덕은 소비에트정부 사무실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나는 그 집에서 20명가량되는 가야허지방 농민들과 담화를 하였다.

≪우리는 소비에트정부 대신 새 정부를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여러 분들의 의사에 맞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정부를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하자 한 노인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마음고생을 안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부만 세워주면 원이 없겠수다.≫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소비에트정부를 대신하게 될 정부로 인민혁명정부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과 이 정부는 세계정권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정부로 될 것이라는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선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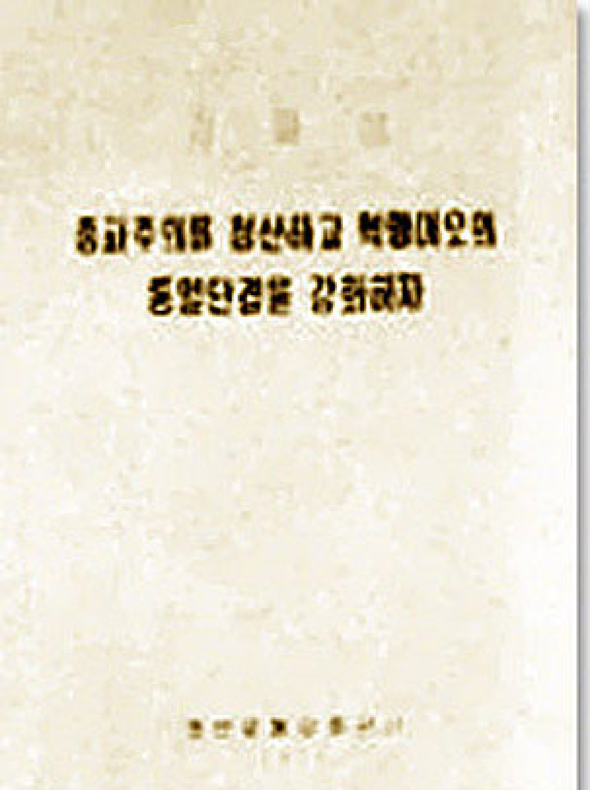
≪이 정부는 조국을 사랑하고 겨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며 그들의 숙망을 풀어줄 것입니다. 여러 분들의 숙망이 무엇입니까? 땅을 가지는 것, 노동의 권리를 가지는 것,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 만민이 평등하게 사는 것　인민혁명정부는 이 모든 소원을 죄다 풀어줄 것입니다.≫

가야허의 인민들은 인민혁명정부노선에 대한 우리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우리는 인민혁명정부의 탄생을 선포하는 의식에 앞서 소비에트정부가 몰수했던 개인의 재산들을 본인들에게 모조리 되돌려주었다. 몰수 후 파손되었거나 소비해버린 물건들을 보상하기 위하여 양성룡은 목재소를 치는 전투까지 조직하였다. 그 전투에서 노획한 소와 말로 농민들

소왕청일대전경

→



1933년 5월에 썼던 론문을
정리하여 발표한 소책자

은 그 해 봄 분여받은 땅에서 밭갈이를 하였다. 이날의 모임에서는 인민혁명정부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는 내용의 나의 연설이 있었고 10개조항에 달하는 정부정강 내용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그 정강 내용은 훗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사수평마을에 갔을 때의 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은 현당 서기 이용국의 모습이였다.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춤판에 뛰어들어 축제의 기분으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춤판에서 슬그머니 떨어져나와 그의 곁에 가까이 다가갔다.

≪서기동무, 모두가 춤을 추는데 이게 웬일이오?≫

이용국은 두 볼에 흘러내린 눈물자국을 씻을 염도 없이 한숨을 무섭게 내쉬었다.

≪저 사람들이 어째서 나에게 침을 뱉지 않는지 모르겠소. 왕청 사람들이 좌경 때문에 고통을 받은게 다 나 대문이 아니겠소. 그런데 이 고장사람들은 오늘 나를 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란 말이오. 사실 인사를 받아야 할 분이야 김대장이 아니오.≫

≪우리 인민은 인정이 무른 대범한 인민이오. 그들이 과거를 계산하지 않고 서기 동무에게 감사를 드린 것은 인민혁명정부노선을 달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오. 이제는 우리 다같이 내일에 대해서만 생각합시다.≫

≪나는 지금껏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남의 정신으로 살아왔소. 동무는 나에게 참으로 귀중한 진리를 깨우쳐주었소. 인민을 위해 살자! 평범한 이 한마디 말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소. 나는 평생 이 구호를 잊지 않겠소.≫

이용국은 내 손을 그러잡고 열정적으로 부르짖었다.

그는 이 맹세를 생활에서 만족스레 구현할 수 없었다. 동만특위가 그를 현당 서기의 직책에서 해임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특위에서는 이용국이 원래부터 엠엘파라고 하면서 왕청현당이 소비에트노선 집행에서 극도의 좌경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를 해임시켰는데 그에게는 ≪민생단≫ 혐의도 있다고 하였다.

이용국이 엠엘파라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당한 소리였다. 세린하에서 청년사업을 하고 있던 그를 동만특위공청서기로 추천한 사람이 과거 엠엘파에 관계했던 인물이였을 뿐이다. 극좌적인 소비에트노선의 집행으로 인하여 빚어진 모든 후과의 책임을 현당서기 한 사람에게만 들씌운다는 것도 무리하고 비도덕적인 처사였다. 이용국에게 철직책벌을 적용한다면 소비에트노선을 내려먹인 사람들과 그 집행을 강요한 당사자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책벌을 주어야 하는가.

이용국이 ≪민생단≫이라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당치않은 소리였다.

나는 그가 종파도 아니고 민생단도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보증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오의성과의 담판을 위하여 나자구에 가 있을 때 이용국은 끝내 ≪반혁명분자≫라는 감투를 쓰고 처형당하였다. 그가 살아온 경력을 보면 민생단으로 될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 한 때 체포의 선풍을 피하여 망명해간 연해주에서 이용국은 망명객으로 일생을 편안히 살아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혁명을 위하여 다시 간도 땅에 돌아와 태풍속에 몸을 내던졌다. 이처럼 성실하고 양심적인 인간이 어떻게 되어 민생단 모자를 쓰게 되었는지 나는 아직도 그 까닭을 모르겠다.

5구에 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된 얼마 후 동장영은 나를 찾아와 웃는 얼굴로 쾌활하게 말했다.

≪**김일성**동지, 오래지 않아 우리는 국제당파견원동지의 참석하에 노선전환 문제를 토의하게 됩니다 5구에서 인민혁명정부를 건설한 경험도 있으니 정권문제와 관련된 기본발언을 **김일성**동지에게 부탁합니다.≫

그 해 여름 노선전환을 토의하는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노선전환에 관한 문건을 가지고 동만지방에 온 국제당파견원도 참가하였다. 나는 이 회의에서 노농동맹에 기초한 통일전선적 정부로서의 인민혁명정부노선을 내놓고 정부의 시정방침에 관한 안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그 안에는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경제, 교육, 문화, 보건,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제반 민주주의적 시책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우리의 안은 국제당의 새로운 노선에도 부합되는 것이였다. 국제당 파견원은 우리가 제창한 인민혁명정부노선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심각한 논전과 사상투쟁의 분위기속에서 날짜를 끌며 여러 날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인민혁명정부노선에 기초하여 소비에트를 인민혁명정부를 개편하고 유격구의 모든 지역들에서 소비에트노선의 좌경적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가 있을 후 동만지방의 모든 소비에트들은 인민혁명정부로 개편되었다. 조건이 성숙되지 못한 곳에서는 과도적 형태로 농민위원회를 내오고 점차 인민혁명정부로 개편하도록 하였다. 사유재산 철폐의 명목밑에 몰수하여 유격구 인민들이 소비한 재산에 대해서는 인민혁명정부가 현금과 현물로 보상해주었다.

인민혁명정부는 인민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정부로서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원수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였다.

가야허에서의 인민혁명정부 수립과 노선전환 회의를 계기로 하여 동만 각 현의 혁명조직구들에는 구인민혁명정부가 나오고 마을마다에는 촌인민혁명정부가 출현하였다. 구인민혁명정부들에는 회장, 부회장, 9-11명의 집행위원을 두었으며 토지부, 군사부, 경제부, 식량부, 통신부, 의료부 등의 부서들을 두었다.

이것이 해방 후 우리 인민정권을 탄생시킨 맹아였고 원형이었다.

인민혁명정부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였으며 유격구 안의 모든 곳에서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였다. 그 당시 소왕청유격근거지에는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채벌노동과 유벌노동, 숯구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 중 500여 명은 2구 소재지인 셋째섬에 있었고 나머지 500여 명은 방초령에서 마촌으로 넘어가는 영밑에서 노동하였는데 8시간 노동제의 혜택을 받았다.

인민혁명정부의 엄격한 요구에 따라 개인기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종전의 2배나 되는 노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인민혁명정부는 유격구주변의 산림도 자기의 관할하에 두고 통제하였으며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목재를 한대도 베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 조치가 발표를 보기 시작하자 대두천에 있는 친화목재소의 일본인 소장과 중국인 목재상은 유격구에 찾아와 채벌허가를 얻기 위한 담판을 요청하였다. 그 담판이 있은 다음부터 목재업자들과 목재상들은 나무 한 대에 1원씩으로 환산하여 그에 해당되는 피복, 식량, 일용품들을 유격구에 납부하고 목재를 채벌해갔다.

인민혁명정부는 유격구부락들에 아동단학교를 세우고 무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주민들이 이수구와 십리평에 있는 유격구병원들에서 무상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남녀평등권의 실시로 하여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사회사업에 참가하였다.

유격구에서는 출판소, 재봉소, 무기수리소도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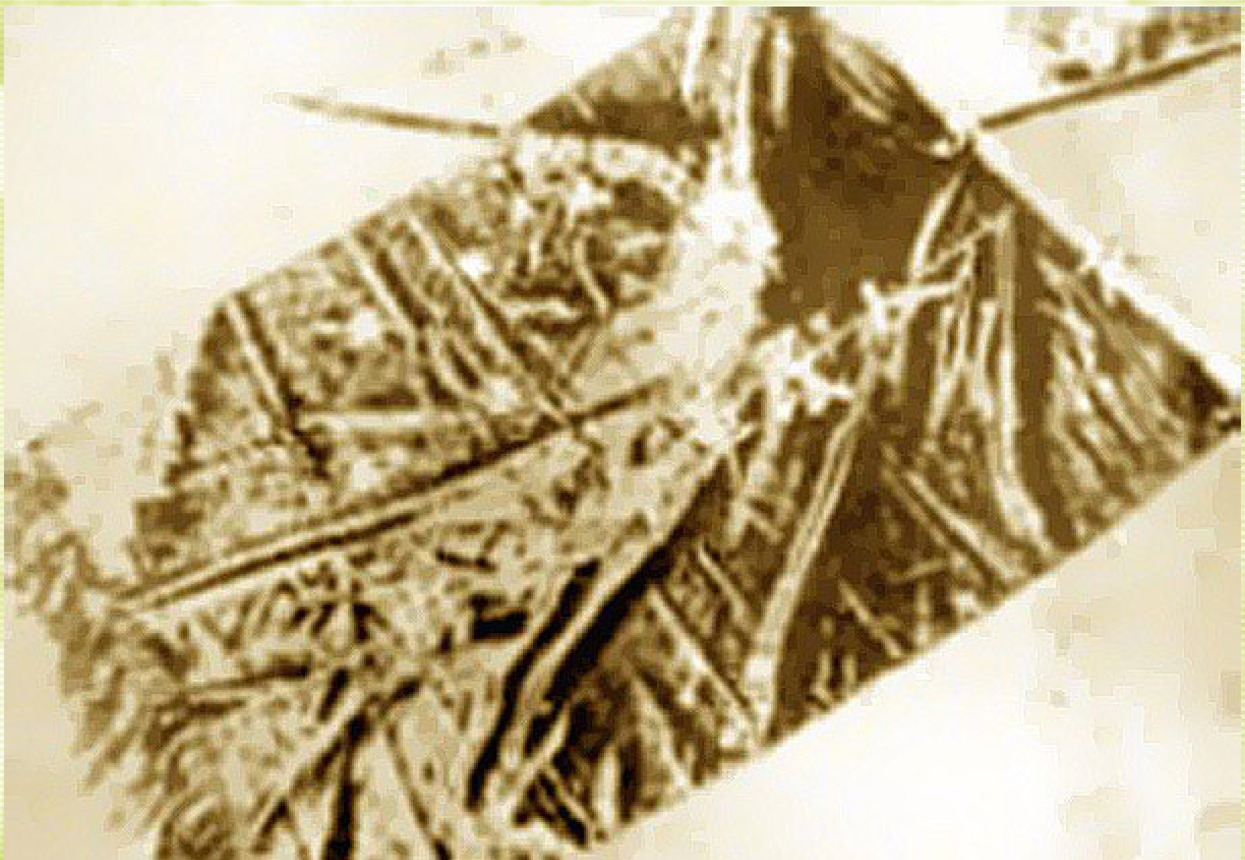
유격구의 문화는 우리 인민이 수천 년을 두고 부를 명가요들을 수많이 창작해냈고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로 이어지는 연극예술의 개화기를 마련하였다.

몰인정과 수탈의 상징으로 되었던 소비에트란 말은 과거를 추억케 하는 하나의 작은 파편으로만 남게 되었다. 좌경적인 소비에트 시책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적구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유격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노인들은 등에 대통을 꽂고 자유롭게 마을돌이를 다녔다. 유격구는 또다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웃음소리 낭랑한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이 되었다.

엄혹한 겨울을 이겨낸 왕청의 골짜기와 산등성이들에서는 산천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천만가지 꽃망울들의 속삭임과 함께 새로운 생활이 힘차게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생활이 어찌나도 부러웠던지 채사령부대가 소왕청에 인질로 데려온 한 지주의 아들은 유격구에서 자기를 쫓아보내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기까지 하였다.

(끝)



왕우구유격구 인민혁명정부기발

일화

남북연석회의에 바치신 노고

남북연석회의가 열린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갔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겨레의 기억 속에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주석님의 민족대단합사상을 받드시어 남북연석회의의 성공적 보장을 위해 항일의 여성영웅이신 **김정숙**여사께서 바치신 불멸의 노고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있다.

역사의 그 나날에 바치신 노고가운데서 추억의 갈피 속에 더듬어지는 한두가지 사례만을 소개하려 한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준비과정에 있은 일이다.

그때 일부 편협한 일꾼들 속에서는 연석회의의 참가대상이 주로 정당 대표들인 만큼 여성대표들을 많이 참가시킬 필요가 있겠는가고 하면서 그들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초청하도록 초청장을 발급하려 하였다.

그러자 여사께서는 장군님께서 미제와 이남반동들이 망국적인 단독정부를 세우려고 책동하고 있는 오늘의 첨예한 정치정세하에서 나라를 사랑하며 조국의 통일을 원하는 각계각층의 남녀인사들과 민중을 반미투쟁에 궐기시키도록 하시기 위해 연석회의를 마련하시였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군님의 이 의도를 남조선의 모든 애국여성들이 깊이 인식하고 투쟁에 떨쳐나서게 하자면 연석회의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남조선의 여성단체들의 대표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된 북조선의 새 현실을 남조선 여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도 여성대표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들어왔다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민주여성동맹을 비롯한 이남의 여성단체들에서 많은 대표들이 여사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가 담긴 초청장들을 받아 안게 되었다.

여사께서는 이남의 여성대표들이 38선을 무사히 넘어 평양으로 오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여러가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 주시었다.

사실 그때 남자들도 38선넘기를 매우 어려워 했다. 더욱이 미제와 반동들은 여성단체대표들이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고 있었다.

김정숙여사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요해하시고 지체없이 연락원을 서울에 보내시어 38선을 넘지 못해 난감해 하는 여성들에게 여성대표들끼리만 길을 떠나지 말고 김구일행과 기자들이 들어올 때 뒤따라 들어 오도록 하시었다.

김정숙여사의 숨은 노고에 의해 여성대표들이 38선을 무사히 넘어가게 되었다.

그들이 평양에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여사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그들의 기분상태와 건강상태 그리고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일일히 보살피시었다.

그러시면서 옷차림은 준비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좋은 천으로 여성대표들의 연령과 인품에 맞는 색깔을 골라 조선치마저고리를 잘 지어 입혀 회의에 참가시키도록 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이남의 여성대표들은 **김정숙**여사의 사랑어린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송가

어머님의 뜻

총대를 사랑하라 어머님은 주시었네
어린 시절 장군님께 쥐어주신 나무권총
총대는 국력이라 심어주신 그 뜻으로
김정일장군님 선군정치 펼치시네
총대를 앞세우고 강성대국 세우시네

조국을 사랑하라 어머님은 주시었네
어리신 장군님께 펼쳐주신 반도지도
내 조국은 삼천리라 이르신 그 뜻으로
김정일장군님 통일조국 세우시네
광폭정치 넓은 품에 온 겨레를 안으시네

인류를 사랑하라 어머님은 주시었네
어리신 장군님께 안겨주신 쌍안경
세상을 굽어보라 키워주신 그 뜻으로
김정일장군님 자주세계 가꾸시네
주체의 햇발로 만민을 이끄시네

흠모

최대의 염원 (1)

김정숙여사와 민족통일

1945년 8월 15일 조국은 해방되었다. 이것은 누가 선사한 것이 아니였다. 조국해방은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온 겨레가 **김일성**장군님을 구심으로 굳게 단합해 피어린 항일의 성전을 벌인 결과에 이룩된 고귀한 전취물이였다.

광복을 맞이한 겨레의 환희는 하늘에 닿아 있었다. 산천초목도 해방의 기쁨으로 설레이는 것만 같았다.

해방 닷새만인 8월 20일 전설적 영웅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 앞에서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장군님께서는 연설에서 해방된 조국에 항일의 불길속에서 축성된 조직사상적 준비에 기반해 노동자계급의 당을 창건하며 노동자계급의 영도밑에 광범한 농민대중과 지식인, 양심적인 민족자본가 등 각계각층의 민주역량을 망라하는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 토대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며 항일무장투쟁의 시련 속에서 단련 육성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민중의 아들딸들로 정규화된 혁명군대를 창건할 데 대한 3대과업을 명시하시었다.

이것은 해방된 조국에 새 조국 건설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당면한 민족사적 위업이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건당, 건국, 건군 노선을 높이 받들고 우리 민중은 새 역사 창조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항일의 전설적 여장군 **김정숙**여사님께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건당, 건국, 건군 노선을 해방된 조국에 빛나게 구현할 일념으로 가슴불태우시며 오매에도 그리던 조국에 개선하셨다.

그러나 여사님께서는 항일의 초연이 서린 군복을 벗지 못하셨다. 미군이 남조선에 진주했던 것이다. 주한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였다. 앞문으로 이리를 쫓아내니 뒷문으로 승냥이가 침입한 격이였다.

미국은 이남에서 식민지적 군정통치를 강제하면서 38도선을 남북분단선으로 정착시켰다. 이리하여 민족의 생활권인 국토는 허리가 잘리고 민족의 혈맥은 갈라져 반만년의 유구한 단일민족사를 기록해온 우리 민족은 본의 아니게 분단시대를 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겨레와 민중이 바라던 바가 아니며 항일의 혈전을 벌여온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들이 바라던 바는 더더욱 아니었다. 장군님의 전사들이 백두밀림에서 혈투를 벌이며 겨레와 더불어 바라고 바란 것은 조국의 해방과 완전자주독립이였다.

그런데 나라의 절반땅이 외세에 짓밟혔으니 이것은 나라의 완전한 해방이 아니며 민족의 절반이 자주권을 찾지 못한 것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이 아니었다.

통일적 중앙정부를 수립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당면한 민족사적 대제였다. 그래서 **김정숙**여사님께서는 해방된 조국에 개선하시었어도 항일의 군복을 벗지 못하신 것이였다.

우리 조국의 완전해방을 실현하고 우리 민족의 완전자주독립을 성취하는 것은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들의 본분이였다. 조국과 민족의 절반을 외세와 반동들의 지배하에 남겨두고는 장군님의 전사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이러한 책임성으로부터 **김정숙**여사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통일을 열렬히 희원하시었다.

여사님께서 간절히 바라신 것은 우선 조국의 완전한 해방이였다.

여사님께서는 조국에 개선하시어 청진지방에서 얼마동안 정치활동을 벌이게 되시었다. 어느날 '새길신문' 기자들의 요청에 따라 회견을 진행하셨다. 기자들은 여사님을 만나자 여성의 몸으로 만주광야를 주름잡으시며 일제의 백만대군과 싸워 이기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찾아왔다고 말씀드렸다.

여사님께서는 웃으시며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다만 장군님께서 강도 일제를 때려부수던 이야기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다고 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김일성**장군님의 종횡무진의 지략과 비범한 전략전술에 대해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이렇게 호소하시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조선해방이 아직 완전해결이 되지 않았으니 조선인민대중은 더욱 희생적 노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사님의 말씀에서는 조국의 완전자주독립에 대한 절절한 소망과 그것을 기어이 이루어내시고야 말 굳은 결의가 뜨겁게 울리고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의지로 살며 투쟁하는 신념의 강자가 되자

노동신문 사설 - 주체91, 4월 29일

오늘의 시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의지로 전진하고 백전백승하는 주체혁명의 새 시대이다. 민족최대의 혁명적명절을 뜻 깊게 장식하는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생명선으로 틀어 쥐고 전면적으로 꽃 피우려는 우리 인민의 사상적각오와 정치적열의는 비상히 높아졌다. 우리는 우리 사상제일주의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깊이 있게 벌려 누구나 위대한 **김정일**동지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자신들을 튼튼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일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은 21세기 강성대국건설과 주체위업완성의 전투적기치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이끌어 오신 전 기간 비범한 예지와 선견지명으로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불멸의 사상리론적지침들을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해 나가는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시되고 시대의 폭풍우를 헤쳐 나가는 간고한 투쟁속에서 이룩된 풍부한 업적과 경험을 집대성한것으로 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은 거대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수십성상 우리 당사업은 물론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일어 난 위대한 전변과 자랑찬 성과, 준엄했던 20세기를 빛나게 결속한 사회주의수호전의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이 가져다 준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은 혁명이 전진하고 세기가 바뀔수록 더욱더 거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에서 불굴의 투지와 혁명적신념을 새겨 안고 새 세기의 진로를 찾는것이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 주신 길을 따라 주체위업승리의 새 력사를 개척해 온 더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의지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21세기 **김정일**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장엄한 진군길에 들어섰다. 이 력사적진군은 우리 사상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이 땅우에 민족번영의 새 시대를 펼치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의 혁명투쟁이다. 우리 사상제일주의는 곧 위대한 **김정일**동지 사상제일주의이며 21세기는 **김정일**동지사상이 전면적으로 꽃 펴나고 승리할 긍지 높은 시대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영원한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틀어 쥐고 나가야 우리는 하루빨리 이 땅우에 존엄있고 강력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수 있다.

지금 우리 식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날로 악랄해 지고 있으며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시련과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가야 할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 해도 기어이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주체혁명의 천만리길우에 우리가 높이 들어야 할 신념의 기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이며 21세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 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안아 와야 할 세대도 다름 아닌 우리 세대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혁명의 요구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우리 세대의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이에서 힘 있게 벌려 자신들을 **김정일**시대의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체득하는것은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가장 영예로운 의무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혁명가로 자라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속에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 안고 주체의 혁명관, 인생관, 도덕관을 체질화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장군님의 혁명전사라는 고귀한 칭호를 영원히 빛내이는 길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을 유일한 생명선으로 틀어 쥐고 나가는데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충성으로 받드는 시대의 기수가 되자고 하여도 장군님의 총대중시사상을 신념으로 체득해야 하고 우리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는 수령결사옹위투사로 삶을 빛내이자고 하여도 혁명적수령관을 체질화하여야 한다.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는 길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뜻과 의지를 삶의 좌우명으로 간직하는데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우리는 얹어 놓아도 매달아 놓아도 수령만세를 부르고 절해고도에서도 령도자에 대한 의리와 지조를 지키는 선군시대 ≪ㅌ.ㄷ≫열혈투사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자라날수 있다.

우리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체득하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식으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대진군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오늘의 시대는 주체위업승리의 새로운 력사가 펼쳐 지는 격동적인 시대이며 이 땅우에 **김정일**강성대국이 일떠서 위용 떨치게 될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이다. 혁명의 폭풍우를 과감히 헤치며 우리 조국건설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창조와 변혁의 대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기 위해서는 누구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은 21세기를 개척하는 창조와 변혁의 위력한 무기이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 돌격전에서 영웅적위훈과 기적만을 아로새기게 하는 전투적기치이다. 불가능을 모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는 창조적기백과 과감한 공격전으로 난국을 타개하는 혁명적기질, 모방과 반복을 모르고 끊임없이 새것을 지향해 나가는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언제나 앞을 내다보며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큰 변혁을 이룩해 나가는 혁명적일본새, 이것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적인 투쟁방식이다.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창조의 능수, 혁신의 기수로 자랑 떨치는 사람들은 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과 의도를 투쟁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는 위대한 **김정일**동지 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철저한 옹호관철자들이다.

지금은 누구나 말이나 구호로가 아니라 높은 실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백배, 천배로 분발하고 뛰고 또 뛰여야 할 때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뜻과 의지, 장군님식투쟁원칙과 방법을 자기의 뼈와 살로 깊이 체득해 나갈 때 이 땅우에는 세기를 주름 잡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불바람이 세차게 몰아 치게 될것이다.

올해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해 나가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혁명적전환의 해이다.

우리는 누구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체득하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이에서 진공적으로 벌려 뜻 깊은 올해에 온 사회에 **김정일**동지사상 절대숭배정신이 꽉 차넘치게 하고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안아 와야 한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의지대로 싸울 때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시련에 찬 혁명의 천만리길을 걸어 오는 나날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이 제일이며 장군님의 사상을 받들어 나가는 길이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체득한 인민이다. 만민이 21세기 투쟁의 홰불로 공감하며 따르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백승의 기치로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 인민처럼 긍지 높은 인민은 이 세상에 없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은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새 세기에도 변함없이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하는 길에 자신들의 행복도, 후손만대의 번영도 있다는 투철한 신념을 변함없이 간직해야 한다. 열백번 다시 태여난다 해도 오직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을 생명선으로 틀어 쥐고 관철하는 길에서 값 높은 삶을 빛내이겠다는 **김정일**사상제일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는 열혈의 투사가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학습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들에는 수십년간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 오시면서 쌓으신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 현 시기 강성대국건설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 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들을 자자구구 따져 가며 깊이 학습하여 그 진수와 내용을 환히 꿰들고 모든 사업을 철저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만 해나가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적대진군의 진두에 서시여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 언제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속에 들어 가시여 새것을 발견하시고 새로운 사상과 방침들을 제시하시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시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적사업기풍이며 혁명령도방식이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그를 구현한 선군정치가 백승을 안아 오는 위력한 정치방식으로 되고 있는것도,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사상과 방침들이 전체 인민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 잡고 현실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는것도 군인들과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가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있기때문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 가시며 강성대국건설

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방침들이 빛나게 구현되는 우리 조국의 거창한 현실을 통하여 장군님의 사상과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느껴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의 천만리길우에 새겨 진 불면불휴의 로고와 무한한 헌신성, 견인불발의 의지를 따라 배우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가야 한다.

그 어떤 조건에서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참다운 사상의 강자는 자기 수령의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내대는 견결한 투사들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 오고 어떤 풍파와 시련에 부닥쳐도 오직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져야 한다. 당건설과 국가건설, 경제문화건설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전개해 나가야 한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사상의 성새에 파렬구를 내고 인민의 마음속에서 신념의 기둥을 허물어 버리려고 그 어느 때보다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에 경각성을 높이고 온갖 불건전한 생활양식과 풍조를 철저히 반대배격하며 우리 사회에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요소도 스며 들지 못하게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일대 정치사상공세를 벌려야 한다. 당선전일군들과 5호담당 선전원들, 선동원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

주체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 쥐시고 우리 혁명과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대중속에 깊이 해설선전하여야 한다. 특히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에로 이끄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정치, 령도풍모가 새겨 져 있는 혁명실록을 통한 교양을 심화시켜 누구나 장군님의 뜻과 의지를 신념으로 새겨야 한다. 이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독창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선전공세를 힘 있게 벌려 온 사회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이 가리키는 길로 나갈 때 사회주의강성대국도 건설할수 있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이 어제도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억척같이 간직된 불변의 신념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감으로써 **김정일**시대의 신념의 강자로 더욱 억세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

동지애의 천만리 (1)

노동신문 정론 - 주체91, 4월 29일

선군위업의 승리의 력사가 흘러 가고 있다.

저 멀리 피눈물의 바다, 포성 없는 전쟁의 폭풍전역을 넘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이 장엄하고도 성스러운 위업이 우리 세대와 후손만대에 남긴 불멸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누구도 갈수 없는 길, 죽음을 각오하고 나섰만 한 신념의 인간들이 피와 목숨을 나누며 가는 이 길은 동지애의 천만리, 혼연일체의 천만리이다.

강철의 령장이시기전에 위대한 인간이신 우리의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장정이라는 력사의 오선지우에 또 한편의 동지애의 노래를 쓰시였다.

천만의 군대와 인민이 백두산장군의 크나큰 심장에 운명의 피줄기를 잇고 기쁨도, 눈물도 그이와 함께 나누고 사생결단의 사지판도 그이와 어깨 겯고 함께 헤치며 승리의 진군길을 열어 가는 동지애의 피어린 자욱,

지구우에 새로운 력사의 한 시대를 받들어 올린 선군혁명위업의 가장 고귀한 총화가 여기에 있으며 백두산민족의 후손만대가 대를 이어 받들어 갈 위대한 **김정일**선군전통의 가장 아름답고 눈물겨운 력사가 여기에 있다.

격정의 눈물없이 밟을수 없는 천만리장정을 력력히 편답한 우리는 억제할수 없는 인간매혹의 붓을 들어 백두령장의 피 더운 심장의 불길인 선군동지애찬가를 여기에 적는다.

(1)

총대는 결코 차거운 쇠부이가 아니였다.

조국의 전방을 누빈 장장 20여만리의 전선길은 단순히 땅우에 그어 진 키로메터가 아니였다.

그것은 뜨거운 심장의 불길, 열혈의 가슴을 헤친 신념의 투사, 의리의 인간들이 애와 정을 쏟고 땀과 눈물을 묻으며 찍어 간 진하고 진한 피의 흐름이였다.

선군, 너의 형상은 바로 그렇게 온다.

저 잊지 못할 다박솔언덕의 초소길에 앞서 어버이수령님령전에서 피눈물의 맹세를 다지던 병사의 모습이 먼저 오며 포성 없는 전쟁의 격렬한 전역들에 앞서 그 영웅적돌파전을 헤쳐 온 사람들의 피 타는 웨침소리, 불덩이 같은 모습, 용감무쌍한 발자욱이 먼저 온다.

선군폭풍이기전에 저 백두산에 시원을 둔 동지애의 열풍이 이 땅에 세차게도 불어쳤다.

우리 장군님께서 지나온 선군행로를 더듬어 보실 때마다 격하신 심정에 잠기시여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것은 그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요란한 위훈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동지들에 대한 생각이다.

얼마전 우리 장군님께서는 지난 몇해동안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곁에는 항상 동지들이 있었다, 동지들과 함께 있었기때문에 나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했고 그 어떤 어려운 용단도 다 내릴수 있었다고 뜨거이 회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용하나 매우 절절하신 어조로 우리 다같이 함께 겪은 그 력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을 잊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몸소 자리에서 일어 나시여 ≪동지애의 노래≫를 선창하시였다.

걸어 온 선군장정이 얼마나 피 절게 사무쳤으면 이런 심중을 피력하셨으랴.

한해한해가 다 그렇게 흘러 갔다. 어느 한해도 동지에 대하여 가슴 저리게 외우지 않은 때가 없었고 ≪동지애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신적이 없었다. 다박솔초소길을 다녀 오신 95년의 첫 밤에도 우리 함께 먼 길을 끝까지 가자며 이 노래를 부르셨고 조국에 큰 재난이 닥쳐 왔던 96년의 그 첫 아침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가고 지뢰밭이라 해도 가는것이 혁명이고 동지라고 하시며 매우 비장하신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시였다. 다음해에도 또 그 다음해에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때로는 위대한 수령님의 ≪ㅌ.ㄷ≫시절처럼 전사들과 어깨를 겯고 때로는 결사의 용맹과 무한한 혁명열을 폭발시키시며 이 노래를 부르시였다.

그렇게도 사무치게 동지를 부르고 그렇게도 강렬히 동지를 숭배하며 싸우신 열화의 나날들, 제일 하고 싶으신 자신의 말씀도, 제일 듣고 싶으신 사랑하는 전사들의 이야기도 이 노래로 대신하시며 이 노래와 더불어 걸어 온 선군 천만리의 이름은 동지애의 천만리였다.

그 길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압살공세를 단신으로 쳐물리치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한 세계사적전승이나 삶과 죽음이 부딪치는 운명의 최후계선에서 일약 강성대국건설에 도전한 민족사적기적으로 해서만 위대하지 않다.

무엇보다 신념이 배신을 이기고 믿음이 절망과 죽음을 이긴 인간의 승리였다.

우리의 선군은 피가 있고 열이 있는 인간들이 심장과 심장을 맞대고 자욱자욱 생사운명의 폭풍우를 함께 헤쳐 온 의리의 싸움길, 피어린 동지애의 전역이였다.

혁명은 동지이고 동지는 혁명이다.

위대한 한별정신으로 뭉쳐 일어 나 동지애를 자기의 피처럼 잇고 자기의 고향처럼 숭배하고 자기의 기발처럼 날리며 싸워 온 조선혁명은 오늘의 선군길에서 다시금 이에 대한 무게 있는 대답을 주었다.

지난 3월 만장을 울리며 하신 우리 장군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모두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린다.

나는 혁명가에겐 부모처자보다 동지가 더 귀중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총 한자루가 정말 귀중했는데 그것은 혁명을 위해서보다 동지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옆에 있는 동지가 쓰러지는데 동지를 살려야겠으니 총이 필요했고 그래서 목숨을 내대면서 적의 총을 빼앗은것이다.

총도 동지를 위해서 잡는다

보통인간의 심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수 없다. 일찌기 혁명은 인간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라는 지론을 대명제로 높이 드시고 파란만장의 동지한생을 온몸으로 체험해 오신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심원한 천명이다.

동지로부터 모든것이 시작된다.

동지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뜨거운 애국주의가 나오고 동지와 뜻을 나누는것으로부터 혁명이 시작되며 동지와 생사를 같이하는것으로부터 총대중시도 나온다.

조국은 목숨보다 귀중하다. 그러나 혁명가에겐 그 귀중한 조국을 위한 투쟁도 동지들의 단합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동지우에 조국도 있고 총대도 있으며 동지우에 당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으며 인생도, 미래도 있다고 주장한다.

돌이켜 보면 우리 수령님께서는 열혈의 젊은 투사들을 얻으시고 ≪ㅌ.ㄷ≫강령을 선포하시였으며 바로 그들과 어깨 겯고 백두산에 들어 가시여 손에 무장을 잡고 조국광복성전을 벌리시였다. 광복후에도 빨찌산동지들을 밑천으로 하여 당도 무으시고 새 국가도 창건하시였으며 바로 동지애와 단결에 토대하여 천리마시대도 창조하시고 사회주의건설위업의 거창한 변혁도 안아 오시였다. 피바다, 불바다를 헤쳐 오며 수십성상 다져 지고 축적된 백두산동지애는 오늘의 선군장정길에서 전면적으로 폭발되였다.

말해 보자, 이 땅과 온 세계를 진감시킨 선군포성은 과연 어떻게 울리였던가.

1994년의 피눈물, 오늘에 와서 보면 그것은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혁명의 걸출한 수령을 잃은 크나큰 슬픔인 동시에 가장 위대한 동지를 잃은 아픔이였다.

혁명의 기나긴 세월 언제나 함께 계시며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 오신 크나큰 마음의 기둥, 위대한 동지를 잃은 슬픔이여서 그 눈물은 보통의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 아니였으랴.

아마도 이 나날과 같이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동지가 그처럼 그리운 때는 없었으리라. 우리 장군님의 그 통절한 마음의 공백을 메울수 있는 제1의 동지가 다름 아닌 군대였다.

군대에 대한 동지적믿음, 세계를 뒤흔든 선군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였다. 그것은 결코 책자우의 요란한 학설이나 정치강령의 장엄한 선포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피눈물의 아픔속에서 제일 미더운 동지가 되여 준 군대, 바로 군대와 함께 장차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시려는 강렬한 열망이 뜨겁게 불 타오르시여 선군길을 택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선군을 확고히 결심하신 장군님께서는 군대를 기둥으로 하여야만 조국과 혁명을 수호할수 있다는 확신을 안으시고 군대부터 찾아 가시였다.

사람들이여, 우리 아직 다 말하지 않았다. 비애의 눈물이 하늘땅을 적시던 94년의 그 나날에 우리 장군님께서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시고 무슨 사업을 제일 중히 설계하시였는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위업의 개척과 항일혁명전을 앞두고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동지들을 하나하나 묶어 세우시였듯이 우리 장군님께서는 장차 새로운 위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내다보시면서 그 길을 함께 갈 동지들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령전에서 슬픔의 눈물도 군대와 함께 흘리신 장군님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의 피와 넋이 어린 권총을 수여하시면서 하신 수령님의 육성록음도 들려 주시면서 고난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함께 가자는 말 없는 심장의 언약을 나누시였다.

그 어떤 시련의 가시밭길도 함께 헤쳐 갈수 있는 충직한 전우, 믿음직한 동행자들을 찾아 수령님 걸으시였던 오두막길과 같은 길도 수없이 걸으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자신과 어깨 겯고 어려운 이 길을 끝까지 가자는 믿음을 담아 인민군지휘성원들 한사람한사람과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그 뜻 깊은 뒤장에 백두산무게가 실린 자신의 존함을 친필로 남겨 주시면서 그들을 어제날의 ≪ㅌ.ㄷ≫성원들처럼 자신의 곁에 세워 주시였다.

(내일 계속)

이회창은 민족의 역적 반통일분자

얼마전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합동토론회라는데서 이회창은 상호주의니 투명성 보장이니 하는 다 쾌진 보따리를 또 들고 나왔는데요. 민족의 역적 반통일분자의 본색을 또다시 드러내 놓은거죠. 그럼 이번엔 ≪이회창은 민족의 역적 반통일분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대중을 비롯한 이 땅의 각계 애국민중 속에서는 한나라당 이회창을 부시의 졸개로 규탄하며 그를 정계에서 들어내야 한다는 항의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있는데요. 이건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으로 큰걸음을 내딛게 됐는데요.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에 유리하게 흐르던 남북관계는 미국에서 호전광부시의 집권과 그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인해 6.15공동선언발표이전으로 되돌아가고 한반도정세는 대결과 전쟁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6.15공동선언이행에는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고 이 땅은 핵전쟁터로 화할 위험에 놓이게 됐습니다.

부시는 ≪악의 축≫이라는 독설로 불집을 만들어놓고 전쟁화약내를 풍기면서 서울행각까지 벌였는데요. 우리 민중은 이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부시를 ≪악의 왕초≫로 규정하고 반미반전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나서고 있습니다.

미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서 통일을 이루려는 것은 우리 민중의 의지이고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회창만이 이러한 대세에 역행해서 호전광부시의 전쟁책동에 편승하면서 정세를 냉전과 대결에로 몰아가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미국의 상전들을 찾아간 이회창은 반북대결소동을 피우며 돌아쳤는데요. 이회창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룰데 관한 6.15공동선언과는 배치되게 한미공조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느니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있게 해야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친미사대매국노의 본질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습니다.

그런가하면 이북의 재래식무기축감이요 대량살상무기문제해소니 뭐니 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회창은 부시의 ≪악의 축≫망발이 튀어나오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일본에까지 건너가서 부시의 ≪악의 축≫발언을 지지하는 천추에 용서못할 반역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뿐아니라 이회창은 노동대중이 미군기지반환을 요구하며 주한미군철수투쟁을 벌이자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은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얼빠진 소리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제반 사실은 이회창이야말로 천하에 악독한 민족의 역적이고 극악한 반통일분자라는 것을 똑똑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회창과 같은 민족의 역적, 반통일분자들이 있기에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한반도정세는 더욱더 전쟁접경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매국역적이며 반통일분자가 권력의 자리를 노리고 대통령감투를 따기 위해 광분하고 있습니다.

반세기이상이나 우리 민중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해온 미제의 사타구니에 붙어 기생하는 매국노이고 반통일분자인 이회창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 민중에게 어떤 가혹한 불행이 닥쳐올 것인가는 너무나도 명백한 겁니다.

독초는 더 *하기 전에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현실은 우리 1300만 노동대중으로 하여금 반이회창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나설 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동대중은 무엇보다도 이회창의 죄행을 올바로 인식해야 할겁니다. 이회창은 그 가문부터가 역적의 가문이죠. 애비의 역적행위는 오늘날 그 아들대에 와서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 행위는 매국노 이완용이 울고 갈 정도입니다.

노동대중은 이회창의 이같은 역적행위와 반통일적 행위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겁니다.

이와 함께 이회창을 정계에서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 나서야합니다. 민족보다 외세를 위에 놓고 외세에게 동족의 이익도 아낌없이 팔아먹는 이회창과 같은 매국노, 민족반역자, 부시의 졸개가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게 되면 6.15공동선언은 백지화되고 이 땅에는 핵전쟁의 참화만이 덮씌워지게 될겁니다.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은 한 하늘을 이고 같이 살수 없는 천하의 민족반역자이고 반통일분자인 이회창을 정계에서 드러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 나서야 할겁니다. 그래서 이회창을 이 땅에서 영영 드러내고 민족의 명부에서도 지워버려야 할겁니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9일

부시의 졸개 이회창의 목을 따자

서울서 사는 대학생 김민수씨의 글 ≪부시의 졸개 이회창의 목을 따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임기수씨입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로 화해와 단합에로 향하던 남북관계가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고 있다.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으로 소강상태에 들어간 남북관계는 지난해 미국을 강타한 9.11사건과 올초 부시가 ≪연두교서≫라는데서 한 ≪악의 축≫발언이후 급격히 긴장격화에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9.11사건이후 한반도전력공백을 메꾼다는 구실로 전력증강책동에 광분해왔다. 그리고 올 들어서는 북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하면서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과 대북핵선제타격을 떠벌이며 연일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다. 게다가 이회창역도가 부시의 반북책동에 적극 추종해나섬으로써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한반도정세는 더욱 긴장되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출범하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이 그 누구보다도 친미사대행위를 일삼아온 자가 바로 이회창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 그리고 지난해에 있은 9.11사건과 관련한 보복에 쌍수들어 지지찬양을 보낸 자가 다름아닌 이회창이다.

이회창은 올 정초부터 미국상전을 찾아가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에 비위를 맞추면서 상호주의, 검증, 투명성을 떠벌이며 한반도전력증강과 주한미군영구주둔을 구걸하는 반민족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상전의 ≪악의 축≫망발을 그대로 되받아 외우며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과 핵선제공격기도에 적극 추종하면서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 적극 부채질을 해주고 있다.

지금 이회창은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에 적극 편승해서 북침을 노린 이지스함과 전투기 등 막대한 액수의 전쟁장비구입도입에 열을 올리어 이 땅을 양키들의 살인무기전시장, 핵전쟁화약고로 만들려 하고 있다.

특히 이회창은 최근 북의 대량살상무기가 한반도평화에 장애로 된다느니 북의 테러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한반도주둔 미군전력증강이 필수적이라느니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군기강확립과 작전준비완료니 뭐니 하는 화약내 풍기는 망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불변론≫, ≪북한퍼주기론≫ 등 반민족적인 궤변을 늘어놓으며 남북관계를 대결과 전쟁에로 몰아가려하고 있다.

제반 사실은 이회창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미국의 충견, 부시의 졸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이런 자가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으면 6.15공동선언은 빈휴지장이 될 것이고 남북관계는 격화되어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이 터지게 되고 우리 민족, 민중은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가도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낼 수 없음은 물론이고 한국민은 미국의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불의에 가차없고 통일애국에 불타는 우리 청년학생들이 어찌 민족반역자, 미국의 졸개인 이회창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한총련이 이미 지난해에 이회창을 친미사대매국노 반통일역적으로 규정하고 반이회창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린 것은 지극히 정당하며 자랑할만한 일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미 지펴올린 반이회창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야 한다. 특히 이회창이 저지른 친미사대매국행위와 반통일죄행을 낱낱이 폭로단죄하기 위한 대국민홍보활동을 적극 벌여 각계 민중들속에서 부시의 졸개인 이회창의 목을 따자는 목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나오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자, 농민, 종교인 등 각계 민중과의 단합된 힘으로 범국민적인 반이회창투쟁을 보다 강력히 벌여나가야 한다.

청년학생들이 선봉이 되어 대학가와 공단, 성당과 거리, 이 땅의 이르는 곳마다를 이회창의 친미행위를 단죄하는 성토장, 심판장이 되게 하자. 하여 거족적인 반이회창투쟁의 불길로 부시의 졸개, 미국의 충견인 이회창의 목을 따고 이 땅에서 전쟁의 불구름을 가셔야 할 것이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8일

이회창은 부시의 핵전쟁 머슴꾼

지금 온 겨레가 부시호전집단의 북에 대한 ≪악의 축≫망발과 ≪핵공격계획≫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반미투쟁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나라당의 이회창과 그 패당들이 부시호전집단의 대북강경압살책동에 쌍수를 들어 박수를 치면서 부채질하고 있어서 민족의 분격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회창은 부시의 핵전쟁머슴꾼≫,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부시가 북에 대한 ≪악의 축≫망발을 연발하면서 북침핵전쟁도발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이회창이 부시호전집단을 적극 추종하고 있어서 국민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김현규 :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정세는 미국의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인해 극히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시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데 이어 기회있을 때마다 북에 대해 ≪악의 축≫발언을 되풀이하면서 북침핵전쟁기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고 미국호전집단이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광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회에 제출된 ≪핵태세 검토보고서≫는 그 명백한 증거로 되고 있죠.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미국은 지난 시기 ≪전쟁억제수단≫이라고 광고하던 핵무기를 ≪선제공격수단≫으로 하면서 전쟁에서 능히 사용할 수 있는 전투무기로 규정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의 위협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해야한다고 밝혔는데요. 보고서에서 드러난 지하시설파괴를 위한 ≪중형핵무기개발≫기도도 북을 겨냥한 겁니다.

부시호전광의 북에 대한 거듭되는 망언과 ≪핵태세 검토보고서≫,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하늘과 땅, 바다에서 진행된 대규모 북침전쟁연습 등 심상치 않은 사태들은 북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이미 위험단계를 넘어 모험적인 실동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엄중한 건 한나라당의 이회창이 우리 겨레에게 핵참화를 덮씌우려는 미국의 무모한 책동에 키질을 하는 반역행위를 거리낌없이 일삼고 있는 겁니다.

사회자 : 더 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경향 각지에서는 이회창이 미국의 ≪핵전쟁머슴꾼≫이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까요.

김현규 : 부시호전집단이 테러방지의 구실로 북의 대량살상무기보유를 떠들면서 무슨 ≪검증≫이요 ≪투명성≫이요 뭐요 하고 한반도정세를 더욱 긴장시킬 때만해도 그렇습니다. 이회창은 그때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별의별 추태를 다 부렸는데요. 그후에 북을 걸고 들며 온갖 험담을 하던 이회창은 연두기자회견에서도 또다시 북을 걸고 들면서 ≪투명성≫이니 ≪검증≫이니 했고 있지도 않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에 대해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었습니다.

사회자 : 까마귀 백번 울어도 까욱소리밖에 나올게 없다고 이회창은 바로 그런 자이기 때문에 미국을 행각했을 때에도 북에 대한 험구를 늘어놓았고 미국의 충견역을 놀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현규 : 그렇습니다. 이회창이 하는 짓이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을 반역하는 못된 짓뿐입니다. 그는 미국에 가서도 민족반역자, 미국의 전쟁사환꾼으로써의 정체를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상전들을 찾아다니면서 북은 변한 것이 없다느니 휴전선일대에서 북의 무력을 후퇴배치해야 한다느니 핵개발저지니 뭐니 하는 따위의 망발을 늘어놓았는데요. 이회창의 이같은 망발들은 그 자신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모두 북침핵전쟁을 추구하는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그대로 외운 것뿐입니다.

심지어 그는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존재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영구주둔론을 또다시 들고나왔는데요. 이것은 그가 우리 민중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북침전쟁을 일으키려는 주한미군에 명줄을 걸고 있는 가장 추악한 미국의 변견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이회창의 꼴은 신통히 만고역적 이완용과 같은데요. 그 역적무리의 앞장에 서서 민족, 민중을 반역하는 범죄를 저지르다 못해서 대양 건너에까지 가서 민족멸살을 노리는 미국에 적극 추종한 건 이완

용이 섬오랑캐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것에 맞먹는 용납못할 매국배족행위입니다.

헌데 이회창의 매국배족적이고 호전적인 정체는 부시의 한국행각과 관련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각계 민중의 강력한 항의와 배격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한국을 행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북 을 겨냥해서 위험한 정권들이 대량살육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느니 뭐니하는 호전적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망발에 맨선참 박수를 쳐준 것이 바로 이회창입니다.

부시의 한국행각시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별의별 아부아첨을 다한 이회창은 자기의 상전이 떠나기 바쁘게 총재단회의라는 것을 벌여놓고 한미상호이해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느니 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미국상전의 전쟁광기에 맞장구를 쳤고 사실을 왜곡날조해서 북의 대량살상무기확산이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성명까지 내뜨리게 하는 망동도 저질렀습니다.

사회자 : 이회창은 흑백을 전도하면서까지 부시의 충견역을 수행하는데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가 내외의 지탄을 받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를 쌍수를 들어 환영한 거라든지 부시의 ≪악의 축≫망발에 이해니, 지지니 하는 궤변을 한 것을 봐도 이회창은 북침을 노리는 부시의 충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부시의 북침전략수행의 하수인으로써 남북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가 하는 건 한나라당이 꾸며낸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을 봐도 잘알 수 있지 않을까요.

김현규 : 한나라당의 이회창패당이 이번에 조작해낸 대북기본노선은 부시의 북침핵전쟁계획수행을 위한 반북대결적이고 호전적인 북침노선입니다. 북의 정권과 주민을 분리시킨다는 이른바 ≪분리원칙≫이나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교류협력을 할 수 없다는 ≪선평화 후교류협력의 원칙≫, 그리고 한반도 북부지역을 저들의 통치권에 넣고 개발하겠다는 ≪북부개발계획≫ 등 어느 것이나 부시호전집단의 구미에 맞게 짜여진 것입니다. 특히 ≪북부개발계획≫같은 건 북침통일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건데 이건 남북대결로 악명을 떨쳤던 선임 군부독재자들도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었던 매우 위험한 호전적 발상이 아닐 수 없죠.

결국 이회창패당이 꾸며낸 대북기본노선이란 남북관계를 계속 대결과 냉전상태로 몰아가기 위한 반북대결선언이고 부시의 핵전쟁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북침전쟁선언입니다.

사회자 : 옳습니다. 제반 사실들을 놓고 보면 이회창이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부시의 핵전쟁머슴꾼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입증하고 있는데요. 민족안에 이런 전쟁사환꾼을 그대로 두면 6.15공동선언이 백지화되는 건 물론이고 남북관계가 첨예한 대결상태로 치닫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울 것은 명백하고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건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이죠. 각계 민중은 부시호전광을 등에 업고 북침전쟁을 도발해 민족공멸을 초래하려는 이회창에게 민족의 준엄한 철추를 내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자면 반미반부시투쟁과 함께 일신의 영달과 집권을 위해 한반도를 핵전쟁의 도가니속에 밀어넣는 것을 서슴지않는 이회창과 그 패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함께 벌여야 하겠죠.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8일

NO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 원해

F-X 공대위, F-15K 대통령 재가 거부 촉구 집회 열어

≪우리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30일 낮 12시 옥인동 범혜사 앞에서 ≪F-X 사업 외압 의혹 진상규명 및 F-15K 선정 철회 공동행동≫(이하 F-X공동행동)주최로 열린 ≪F-15K 선정 대통령 재가 거부 촉구 제1차 청와대 앞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F-15K 선정 철회≫ 결단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F-15K 선정에 대한 재가를 거부하고, F-X 사업을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집권말기 대통령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회사를 통해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정부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있고,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가 F-X ≪사기≫사업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민의 피와 땀, 눈물로 전쟁무기를 사들이는 F-X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오종렬 상임의장은 ≪우리는 미국의 노예가 아니다. 미국의 전쟁무기를 사들여 동족간의 분쟁을 일으켜왔던 과거의 고리를 끊지 않고 우리의 미래는 없다≫며 ≪지금 전국민이 F-X사업 거부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임종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는 규탄연설을 통해 ≪지난번 NGO 단체들과의 간담회 때 김동신 국방장관이 ≪F-X사업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지금 F-15K 선정을 둘러싼 의문에 대해서 하나도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F-X사업을 파행적으로 추진한 김동신 국방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경원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공동대표는 어제 있었던 감사원 앞 기자회견에 대해 언급하며 ≪감사원이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진행하는 사업에 의혹이 있다면 마땅히 감사에 나서야지 무슨 심의위원회냐≫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F-X사업은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서경원 공동대표가 규탄연설을 하고 있는 도중에 경찰은 집회대열 앞에 있던 F-X사업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F-15K 모형관≫이 신고되지 않은 시위용품이라며 경고방송을 내보냈고, 참가자들은 허가된 집회장소에 경찰이 난입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다음 규탄연설을 박유순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이 진행하고 있을 무렵 참가자들의 오른쪽에 위치해있던 6-7명의 경찰들이 ≪F-15K 모형관≫을 빼앗기 위해 집회장소를 급습해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던 집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버렸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방해한 경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허가된 집회를 폭력적으로 방해한 종로경찰서 현장책임자와 서장에 대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F-15K 모형관≫을 빼앗은 경찰은 참가자들의 항의에 아무런 대답없이 집회장소에서 물러갔다.

한바탕의 소동 후에 참가자들은 대열을 정리하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F-15K 선정 재가를 거부하고, F-X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 항의서한을 낭독하고 1차 청와대앞 집회를 마무리했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4/30

FX사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른바 FX사업이라 불리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노태우 정권 시 한참 문제가 불거졌던 율곡 사업의 일환이었다. 당시에는 사업규모가 전투기 120대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예상되었던 사업이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규모가 현재의 40대로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약 10년 여를 표류하던 이 사업은 올해 4월말 기종 선정을 앞두고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지난 2월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FX사업에 대한 외압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결국 부시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뒷소문으로 외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한겨레 신문에서 각 기종에 대한 평가서가 공개되었다.

그 속에 들어있던 내용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60점의 비교적 높은 기본점수의 부과에 있었다. 기본점수를 높게 책정하게 되면 각 기종간의 점수차가 좁아지게 되고, 결국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기종도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2차 심사의 기준은 정책적 요인이라는 애매모호한 잣대를 설정하였다. 이것은 결국 외압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한겨레 신문사에서 발표된 결과에서는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기종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 그 의혹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여러 가지 공개된 자료만을 보더라도 국내에 도입 예정인 미국 보잉사의 F-15기종은 미국에서 교체작업에 들어간 사양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라팔 기종과 비슷한 점수를 유지했다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한 우리 정부는 독자적 전투기 개발을 위하여 각 공급업체와의 협상에 기술이전이라는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도 프랑스는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가격 등 모든 면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라팔의 선택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 정세는 발전노조의 파업, 공무원 노조의 출범 그리고 FX사업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국내의 메이저 신문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간단한 사회면의 기사 하나로 이런 모든 사안을 접어버리려 하고 있다. 반면에 한겨레 신문은 3월 이후 계속되는 기사를 통해서 FX사업의 오점을 알리려 노력하였고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업은 시기상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정권 말기에 주어진 사업에 대하여 정리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려하는 노력과 더불어 이번 사업은 평가상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무려 5조가 넘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물론 엄청난 액수가 투입되기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국방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니 정부는 이번 사업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문에서 논하는 것처럼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계획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유뉴스 2002/04/29

국회에서 미군피해 사진전 열리던 날

미군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 사진전 열려

국회연구단체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대표 김원웅 의원), ≪주한미군고압선피해자 전동록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공동으로 주최한 <미군고압선 감전피해자 전동록 사진전>이 29일 국회 의원회관 1층 로텐더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김원웅 의원이 공대위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것이다. 행사에는 현장사진연구소(소장 이용남)에서 촬영한 사진 40여 점이 전시되었다.

김준기 공대위 공동대표는 의원들에게 사진전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전동록씨가 당한 피해는 개인의 피해일 수 없고, 자국의 이익 때문에 남의 나라에 들어와 한국민을 이토록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데도 정부가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번 사진전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미군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불러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회에서 사진전을 여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성호, 김태홍, 박종우, 이창복, 임종석, 장영달, 정범구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만규 위원장(매향리폭격장 폐쇄를 위한 주민대책위) 등이 참석하여, 더 이상 이러한 피해를 묵과할 수 없다는데 한목소리를 높였다.

전시장을 지나가는 의원들 중엔 매우 당혹스러워하며 애써 사진을 외면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정치적 부담감 때문인지 비록 방명록에 서명은 하지 않아도 전 씨의 처참한 사진 앞에 모두 할말을 잃은 표정들이었다.

국방위 소속 장영달(새천년 민주당) 의원은 전동록씨의 피해에 관해 사전에 미처 알지 못했는지 사고가 미군기지 안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밖에서 일어났는지를 물었고, 이용남(현장사진연구소 소장) 씨가 ≪고압선이 나선이 아닌 피복선이기만 했어도 피해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말하자 ≪전기줄이 피복이 없는 경우도 있냐≫며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장 의원은 즉석에서 국회에 상주하는 국방부 소속 소장(軍)을 불러 국방부는 이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고, 국방부에서 꼭 알아달라는 부탁과 ≪향후 관련 자료들을 국방부에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지난 부시 미 대통령 방문 당시 대북화해 정책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내는데 발의자로 나선 바 있는 김성호(민주당) 의원은 사진전을 둘러본 소감을 묻자 ≪끔찍하다. 주한미군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주한미군으로 인해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국회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작년 말 경기도지역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미군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하철과 길거리에서 전동록씨 문제를 호소할 때 대다수 시민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왜 나서지 않는냐. 정치인들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분노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갖고 이후 적극적인 대응책을 다짐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날 행사를 지켜본 공대위 김현경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성금 6천만원을 모아낼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이제야 정치인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늦은 감은 있지만, 국회에 주한미군은 사과하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그들로 인한 피해 사진이 걸린다는 게 예전 같으면 상상이나 했던 일이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소희기자
오마이뉴스 2002/04/30

올 사회운동 핵심 이슈는 ≪반미 · 민중생존권 문제≫

[인터뷰] 전국민중연대(준) 주제준 조직국장

전국민중연대는 민족민주운동 · 민중운동 진영의 상설적 공동투쟁체. 98년 ≪고용실업 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99년 ≪민중생존권 쟁취 사회개혁 및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2000년 ≪신자유주의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로 이어지는 한시적 공투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체다. 올해 상반기 본조직 건설을 목표로 현재는 43개 단체가 준비위원회체계에 결합해 있다.

주 국장이 파악하는 최근의 주요 이슈는 ≪반미 문제≫다. ≪민중들이 투쟁을 통해서 본질을 깨닫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반미의식이 높게 고양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작년 ≪대우자동차투쟁≫ 때부터 미국GM에 매각강요로 노동자들의 반미감정이 폭발했고, 94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쌀개방 문제에 이르기까지 밑바닥으로 내몰린 농민들의 의식도 급격하게 고양되었죠. 거기에 불을 붙인 것이 올해 FX 사업과 결합된 부시의 방한이었습니다. 여기에 우연치않게 ≪오노사건≫이 터지면서 기름을 붓게 된거죠≫

또 하나, ≪민중생존권≫ 문제로 올해 상반기 불거진 것이 ≪발전노조≫ 투쟁으로 대표되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문제. ≪발전소의 경우 민영화가 된다면, 해외매각 내지는 적어도 컨소시엄 구성 형태인데, 3조 몇천억원에서 5억원 규모이기 때문에 해외 매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발전소 민영화로 인한 전력요금 상승은 고스란이 한국민중이 떠맡게 되는 셈이죠. 그러기에 발전소 투쟁은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 전체 민중의 문제입니다≫

전국민중연대가 투쟁을 조직하는데서 어려운 점은 ≪공동투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실천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각 단체들의 현실≫이라고 주 국장은 말한다. ≪각 단체 활동가들도 전국민중연대의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의식과 실천의 괴리≫가 나타나는게 사실입니다. 실제 민주노총도 아직 상근자 파견을 못하고 있어요. 단적으로 현재 상근자가 7명이 있는데 상근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시민사회단체의 아킬레스건(?)인 재정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투쟁으로 해결해야지요. 일일주점 같은 걸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투쟁 속에서 전국민중연대의 역할을 높여내는 형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계속될수록 민중들은 내몰릴 것이고, 다음정권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민중들의 투쟁도 계속 될 것이고요. 시민단체 역할의 중요성도 더 커질 것입니다. 저는 ≪시민≫과 ≪민중≫이 딱 나눠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 기층민중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시민운동의 시각도 필요하지 않

정용인기자
시민의 신문 2002/04/30

빗속 철거민 시위

≪임대시설 마련하고 철거해라≫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부근, 황학동 (청계8가) 삼일 아파트, 안암동 철거지역에 용역깡패를 앞세워 난동을 부리고 철거민을 무차별로 연행하는 등 월드컵 개최일이 다가오면서 철거민에 대한 정부의 폭력 수위가 정도를 넘어서자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소속 철거민들이 29일 시청앞에서 빗속 시위를 벌였다.

월드컵경기장 부근 상암동 지역은 이미 한 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가 철거된 상황이다. 17일부터 시청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왔던 상암동 전철연 이동수 위원장은 경찰에 연행된 이후로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전철연 양해동 정책위원장은 ≪시청 앞에서 40일간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암동 철거민들의 농성장에 술취한 시청 직원이 밤에 칼을 들고 들어와 철거민들의 비닐 이불을 찢고 난동을 부렸다≫고 전하고 ≪철거민들이 항의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30여명의 병력이 들이닥쳐 철거민 15명을 강제 연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암동 철거지역의 경우 지난 주말에 걸쳐 용역깡패와 경찰이 합세, 철거민 7명이 강제 연행됐고 이 과정에서 심한 폭행이 일어났다. 안암동 철대위는 ≪철대위 사무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용역깡패들이 거점을 마련하고 각종 흉기와 휘발유를 비치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시청앞 빗속 시위에는 황학동 주민을 비롯, 일산 풍동, 안암동 등 철거민 50여명이 참석해 비 때문에 급속히 내려간 기온 속에서도 서울시와 시민들을 향한 자신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소리높여 외쳤다. 그러나 4시 현재, 철거민들은 서울 시청에서 고건 시장 면담을 요청하던 중 일부 철거민들이 연행된 채 시청 2층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

또한 황학동 철거민들중 대다수가 청계천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어 월드컵을 앞둔 정부의 이중 탄압에 생계와 주거권이 동시에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미진기자
시민의 신문 2002/04/29

부시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 (2)

차 례

(1) 북(조선)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전술

▶ (2) ≪악의 축≫ 폭언이 노린 세 가지 목표

(3) 곤경에 빠지고 있는 부시 행정부

(4) 미국은 결국 무엇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2) ≪악의 축≫ 폭언이 노린 세 가지 목표

부시가 북(조선)을 가리켜 ≪악의 축(axis of evil)≫을 형성하고 있는 세 나라들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한 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손익계산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준비한 각본에 따라 내뱉은 폭언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2년 1월 29일 연방의회 상하양원 합동연설에서 부시가 읽었던 연설문의 초안에는 북(조선)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백악관이 최종적으로 연설원고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북(조선)을 ≪악의 축≫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외교통상장관 최성홍은 2002년 2월 8일 국회 통일외교위원회 답변에서 남(한국) 정부는 부시의 연설문에 북(조선)에 대한 ≪악의 축≫ 발언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그 발언이 남북 및 조미 사이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하면서 발언내용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백악관이 연설원고 최종본에 ≪악의 축≫ 발언을 그대로 포함시켜 발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시가 ≪악의 축≫이라는 폭언을 내뱉는 경우, 북(조선)을 심하게 자극함으로써 부시 행정부가 되레 역공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예상했을 것이며, 반대파들의 정치공세에 밀리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이 난파의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예상했을 것이며, 그 폭언이 남(한국)에서 반미자주화운동을 촉발시키는 기폭작용을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로부터도 비난과 반발을 받게 되리라는 점도 예상했을 것이다. 남(한국)의 언론에서도 부시는 그러한 용어(≪악의 축≫이라는 폭언을 뜻함)가 ≪국제무대에서 외교정치적으로 몰고 올 파장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이를 국정연설에 포함시켰≫으며, ≪일반적 원칙론을 재천명했다기 보다는 무언가 외교정치적 목표와 속내를 포함하고 있는 단계적 조치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관측≫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악의 축≫ 폭언으로 되레 자기들에게 불리한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으면서도 부시가 그러한 폭언을 내뱉은 것은, 그 폭언행위를 통해서 불리한 사태의 발생을 상쇄하고도 남을만한 더 커다란 목표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부시 행정부가 ≪악의 축≫ 폭언에서 노리고 있었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그 목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라고 생각된다.

첫째, ≪악의 축≫ 폭언에서 부시 행정부가 노린 것은 미국의 군사비를 증액하고 군비를 증강하는 목표다.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 2002년 1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장관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의 고위 보좌관들은 2001년 12월까지만 해도 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에프(F)-22기 구입예산에서 10억 달러를 줄이고, 미 육군 병력을 3만명 감축하며, 크루세이더(Crusader) 이동식 곡사포 및 코만치(Comanche) 정찰헬리콥터 개발계획을 삭제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미국 군부가 이러한 군비감축구상을 반대하는 바람에 럼스펠드는 군비감축을 포기하고 되레 군사비를 200억달러나 더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럼스펠드는 첩보 및 통신장비, 컴퓨터 연결망을 위해 30억달러, 무인군용차량 프레더터(Predator)와 무인군용기 글로벌 호크(Global Hawk) 생산에 수억 달러, 전자식별장치와 로봇 등이 복합된 전차파괴용 무기 및 무선조종 대포 등 첨단 미래형 야전장비 생산에 5억달러, 지상 이동물체 감시용 위성레이더, 구형이 된 트라이던트(Trident) 원자력 잠수함 4척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원래의 군비감축구상을 뒤집고 군사비를 증액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를 설득하는 고비를 넘어야 하고 사회여론의 비판을 피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을 무력으로 위협하고 있는 적대적 존재를 크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다. ≪악의 축≫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는 기만적 논리는 군비감축구상을 뒤집고 군사비를 확보하는 데 그렇게 이용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북(조선), 이란, 이라크 세 나라를 그러한 군사비 증액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선택되고 악의적으로 규정된 적대적 존재로 등장시키려고 ≪악의 축≫ 폭언을 대통령 연설문에 집어넣었던 것이다.

둘째, ≪악의 축≫ 폭언에서 부시 행정부가 노린 것,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북(조선)을 ≪악의 축≫에 포함시킨 행위가 노린 것은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을 통제하는 목표다.

김대중 정권은 올해 말에 진행될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집권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대중 정권도 다른 역대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권력형 부정비리를 저질러왔으므로 김대중 대통령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서는 때에는 반대파로부터 가해질 정치보복의 악순환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남(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마다 정치파벌들끼리 서로 상대방에게 가했던 정치보복은 이미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만일 김대중 정권이 재집권에 실패하고 반대파가 집권하는 경우, 김대중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반대파로부터 정치적 보복을 당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을 겨누고 있는 정치보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집권해야 하는 지경에 처해 있다. 이것이 김대중 정권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조급증에 빠지게 되는 이유다.

만일 김대중 정권이 재집권에 실패하더라도 반대파의 정치보복을 피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방도가 있다면, 그것은 집권말기에 남(한국)의 대중들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뚜렷한 공적을 남기고 물러가는 일이다. 개혁정책에서 완전히 실패한 김대중 정권에게 그나마 공적을 남길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대북정책밖에 없다.

집권말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는 김대중 정권이 대북협상에 나서는 경우, 공적을 남기려는 조급증에 빠진 나머지 자칫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협상을 진척시키는 ≪실책≫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 바로 이것이 김대중 정권의 대북협상과 관련하여 부시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 정권에게 올해 안에 대북협상을 재개하라고 허락하기는 해야겠는데, 김대중 정권이 대북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급증에 빠져 자기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 정권에게 대북협상을 재개하라고 허락하기 전에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통제·장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이 부시 행정부가 ≪악의 축≫ 폭언에 북(조선)을 포함시켰던 배경이다.

이미 세상이 다 알고있듯이, 부시가 북(조선)에게 ≪악의 축≫이라는 폭언을 한 행위는 한(조선)반도의 분위기를 아연 긴장시켰다.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수 윌리엄 테일러(William Taylor)는 ≪부시는 집권이래 계속하여 김대중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더니 이번에 ≪악의 축≫ 연설로 그를 완전히 좌절시켰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하였다. 한(조선)반도에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면 곤경에 빠지는 쪽은 김대중 정권이다. ≪악의 축≫ 폭언으로 조성된 긴장국면은 대북협상 재개를 준비하던 김대중 정권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고,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을 헐뜯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남(한국)의 정치적 반대파들에게는 힘을 실어주었다.

김대중 정권이 그 곤경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로부터 대북협상을 재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내는 길밖에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가 또 다시 북(조선)에 대하여 폭언을 내뱉지나 않을까, 혹은 부시가 자기의 대북정책을 아주 금지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매우 불안하였을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정상회담을 많이 해봤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처럼 신경을 써 회담에 임한 적이 없었다.≫고 실토한 것을 보더라도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김대중 정권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부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정권이 대북협상을 재개하도록 허락하였다. 2월 20일에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는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한

→

다.≫고 말했던 것이다. ≪악의 축≫에 북(조선)을 포함시킨 공갈발언과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한다는 말은 분명히 모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 모순의 뒤에는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었다.

부시가 김대중 정권이 대북협상을 재개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실은, 도라산역 행사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미 두 정상이 등장한 도라산역 행사는 미리 준비한 각본에 따라 연출된 것으로서, 부시의 방문기간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이벤트≫였다고 한다. 부시 행정부는 부시가 서울에 나타나기 오래 전부터 선발대를 보내서 도라산역 행사현장을 두 세 차례 직접 답사하면서 연출각본을 준비하였다. 2002년 1월에는 당시 외교장관이었던 한승수가 도라산역 현장을 방문하였고, 2월에는 외교장관 최성홍이 또다시 도라산역 현장을 방문하였다.

부시는 ≪악의 축≫ 폭언으로 자기들이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확인시킨 뒤에 도라산역에 나타나서 이제부터는 대북협상을 재개하되 자기들의 통제 아래에서 협상을 추진하라고 쐐기를 박았던 것이다.

셋째, ≪악의 축≫ 폭언에서 부시 행정부가 노린 것은 남(한국)에게 미국산 무기를 강매하는 목표다.

부시 행정부는 앞으로 조미 정치협상이 재개되면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의제에 오르게 되리라고 예견하고 있으며, 그 민감한 의제와 관련한 조미 정치협상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지만 결국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향으로 결말을 지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내가 발표했던 몇몇 논문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논하지 않는다.

미국이 해외주둔지에서 무력을 철수하는 경우, 주둔국의 전력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막대한 양의 무기를 팔아먹는 것은 상습적인 행위다. 그러한 상습적인 무기판매는 한국군을 현대화, 첨단화하는 ≪국방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한국)에게 미국산 무기를 팔아먹는 사업은 이전의 무기판매수준에 비할 바 없이 방대한 수준으로 계획되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사업에는 요격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는 차기 유도무기(SAM-X) 사업, 에이태킴스 지대지 미사일과 육군의 공격용 헬기(AH-X) 도입사업 등이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미국의 보잉사에서 생산하는 전투기 에프(F)-15를 남(한국)에 팔아 넘기는 사업이다.

한국군은 차세대 전투기(Fighter Next, 줄여서 에프엑스(FX)라고 함) 구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한국군이 창설된 이래 단일한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사업으로서, 오는 2008년까지 4조2천억원(32억 달러)을 들여 전투기 40대를 사들이는 것이다. 이 구입사업 입찰과정에서는 미국 보잉사의 전투기 에프(F)-15, 프랑스 다쏘항공사의 전투기 라팔(Rafale), 유럽 4개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전투기 유러파이터 타이푼(EF)-2000, 그리고 러시아의 로스보르제니에 수호이(SU-35)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어떤 군사전문가의 계산에 의하면, 대당 약 1억 달러짜리 에프(F)-15의 무게를 순금의 무게와 비교하였더니 전투기 값이 금덩이값과 같다고 한다.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에프(F)-15는 덩치가 크고 무거운 전자장비와 무장을 싣고 비행하기 때문에 에프(F)-5와 모의 공중전을 벌이면 번번이 패한다고 한다. 에프(F)-15에 실려있는 무거운 고성능 전자장비들은 전투반경이 매우 비좁은 한(조선)반도 상공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되레 비행회전속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며, 따라서 에프(F)-15는 덩치가 작고 가벼워 날쌔게 비행회전하는 북(조선)의 구형 전투기들과 비좁은 공간에서 뒤섞여 공중전을 벌일 경우 격추되는 것은 정한 이치다.

더 놀라운 사실은, 1974년에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했던 에프(F)-15는 이제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사가지 않는 기종으로서 머지 않아 생산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는 낙후기종이라는 것이다. 보잉사는 현재 에프(F)-15를 매년 5대밖에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그 기종의 생산체계를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생산량이다. 보잉사는 미국 국방부와 결탁·공모하여 생산체계를 폐기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가동시키면서 남(한국)에 에프(F)-15를 팔아먹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만일 남(한국)에게 그 전투기를 팔아먹지 못하게 될 경우 보잉사가 수 억 달러를 들여 설치해놓은 거대한 에프(F)-15 생산설비는 하루아침에 고철더미로 날아갈 판이다.

2001년 11월 15일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던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 국방장관 럼스펠드를 비롯한 국방부 고위관리들은 한미연합군 전력의 상호운용성을 들먹이면서 에프(F)-15를 사가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으며, 남(한국) 국방장관 김동신은 그 회의 도중에 열렸던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문제가 논의되었느냐고 기자가 묻자 ≪미국 측으로부터 에프(F)-15 판매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에프엑스(FX)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서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호환성과 연합작전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강매요구에 사실상 굴종·순응하겠다는 의사표시였다.

미국 연방의회 일부 의원들은 2001년 6월 21일 부시와 럼스펠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계약은 보잉사가 반드시 따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에프(F)-15의 판매가 성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으며, 몇몇 의원들은 2002년 1월 18일에 직접 청와대까지 찾아가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에프(F)-15를 사가라고 요구하였다. 서울에서 암약하고 있는 미국 국가정보기관들도 낙후기종 강매사업을 위하여 비밀공작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사가지 않는 낙후기종을 강매할 수 있는 대상은 미국의 강압에 굴종·순응하는 속국밖에 없을 것이다.

남(한국)은 바로 그러한 대상이 되었다. 미국은 보잉사의 낙후기종 생산체계를 폐기할 때 생기는 막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남(한국)에게 떠넘기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비굴하고 무능한 친미예속정권은 저들의 강압에 굴종·순응하고 있다.

낙후기종을 팔아먹는 무기강매사업에 이처럼 미국의 관계, 정계, 군부, 군수산업체, 국가정보기관들이 총동원되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이 그렇게 된 데는 사연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잉사가 재정적 난관에 빠져있고, 특히 군용기 생산부문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도에 보잉사의 총매출규모는 510억 달러였는데, 그 가운데 군용기 및 미사일 부문이 약 120억 달러로서 전체의 2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각지에 산재해있는 군용기 공장과 미사일 공장에는 종업원 약 4만 명이 고용되어 있다고 한다.

지난 2001년 11월 1일에 미군 역사상 최대규모의 사업인 통합공격기(Joint Strike Fighter) 개발사업권을 따낸 것은 라키드 마틴사(Lockheed Martin Corp.)였다. 보잉사(Boeing Co.)가 탈락한 것이다. 보잉사는 2001년도에 이스라엘과 그리스의 전투기 입찰경쟁에서도 탈락하였다. 미군의 통합공격기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미군과 영국군은 25년동안 3천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이 개발사업의 초기규모는 189억8천만달러에 달하지만 나중에는 2천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다. 보잉사는 이 ≪황금시장≫을 놓친 것이다.

라키드 마틴사는 2001년 회계연도에 미국 국방부와 147억달러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금액 순위에서 7년동안 연속하여 1위에 올랐으며, 2001년 한해 동안 라키드 마틴사의 주가는 46퍼센트나 뛰어올랐다. 그에 비하여 보잉사의 주가는 2001년 5월에 70달러였던 것이 9월에는 43.46달러로, 10월에는 33.31달러로 곤두박질쳤다. 보잉사의 영업수익은 2001년 4.4분기에 겨우 1억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2000년도의 같은 기간의 영업수익 4억8천100만달러에 비하여 79퍼센트나 떨어진 것이다.

세계 최대의 항공기 생산업체인 보잉사는 9월 11일 테러사건 이후 전체 종업원의 15.2퍼센트에 해당하는 3만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02년도에는 매출이 60억달러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002년 2월 5일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는 120억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는 보잉사에 대한 장기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만일 보잉사의 군용기 부문과 미사일 부문이 계속하여 재정손실을 입으면서 쇠락하게 되면 그것이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부문에 미칠 부정적인 여파는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미국의 관계, 정계, 군부, 군수산업체, 국가정보기관들이 모두 달라붙어 남(한국)에 낙후기종을 팔아 넘기는 강매작전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남(한국)에게 낙후기종을 강매하려고 하였지만, 남(한국)의 사회에서 반대여론이 들끓게 되었고 심지어 남(한국)의 군부 일각에서도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기종결정을 뒤로 미루어 왔다. 전투기 기종선정은 원래 2001년 7월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슨 평가사업이니 어쩌니 하면서 2002년 4월로 연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미국이 남(한국)에 에프(F)-15를 팔아먹는 강매문제는 시간을 더 이상 끌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렀다. 미국이 취할 방도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청와대에 압력을 가하여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부시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대북협상을 재개하라고 허락하는 대가로 에프(F)-15를 사가는 ≪교환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최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이미 취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교활한 부시 행정부는 전투기 강매문제를 한미정상회담에서 공식의제로 다룰 경우, 남(한국)의 사회여론이 반미감정으로 들끓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공식의제로 다루지 못했으며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이전에 이미 은밀하게 타결하였을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이 끝났는데도 얼마동안 서울에 남아있었던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피터 로드맨이 강매문제의 실무처리를 사실상 매듭지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투기 기종선정문제는 부시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보잉사의 에프(F)-15로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오는 2002년 4월에 김대중 대통령의 최종재가를 받는 형식적 절차를 밟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 계속)

한호석(통일학연구소장)
민 2002년 4월호